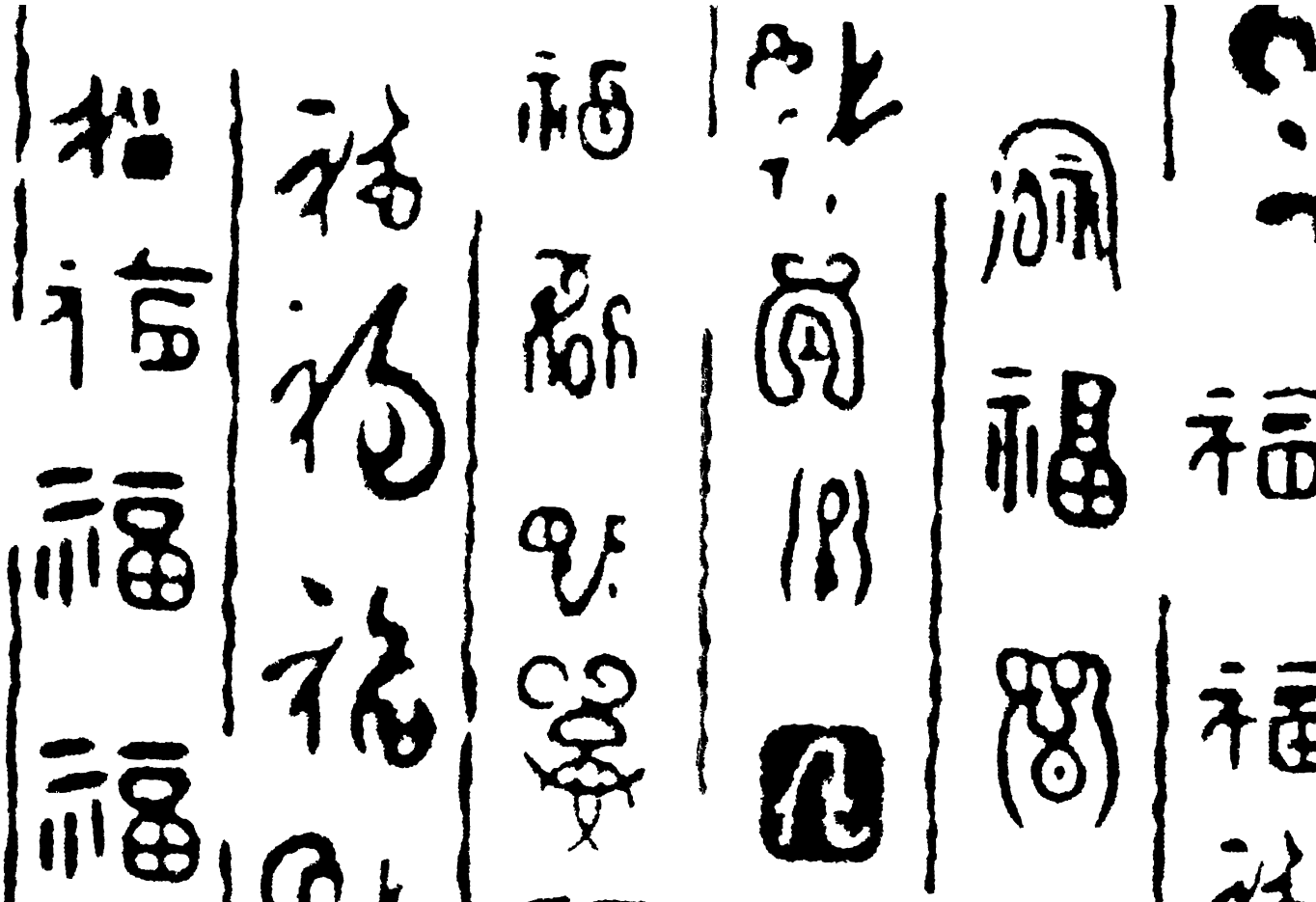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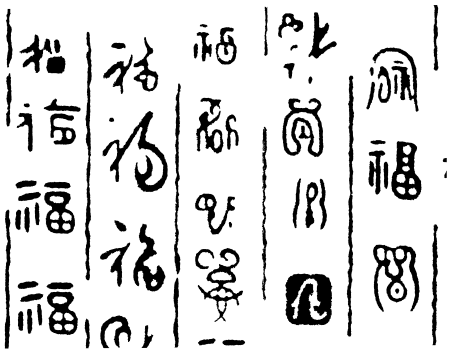
SNUAC
Seoul National University Asia Center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http://snuac.snu.ac.kr

2015 연차보고서

SNUAC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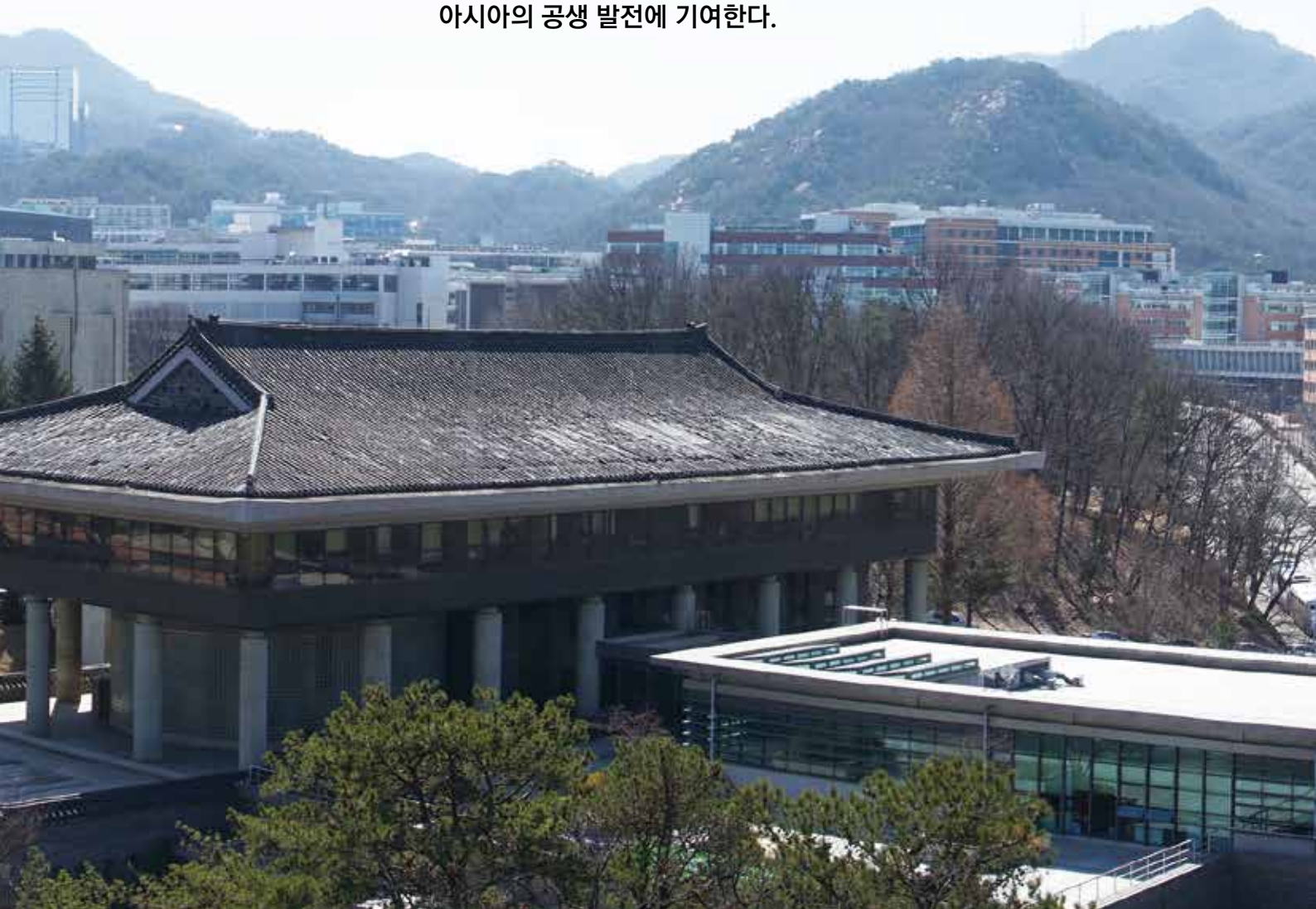
표지설명

삶에서 누리는 좋고 만족할 만한 행운, 또는 거기서 얻는 행복을 뜻하는 복(福)자. 복이란 한자는 원래 '시(示)'와 '복(畐)'의 회의문자(會意文字)이다. '시'는 하늘(天)이 사람에게 내려서 나타낸다는 신의(神意)의 상형문자이고, '복'은 복부가 불러 오른 단지의 상형문자라 한다. 모두 다른 글씨체의 복(福)자를 통해 아시아연구소와 관계한 모든 이들의 복을 비는 마음을 담았다.

16-1

비전

서울대 아시아연구소(SNUAC)는
지역과 주제의 결합에 기초한 미래 창발적 지식 창출과 공유를 통해
아시아 연구의 세계적 허브를 구축함으로써
아시아의 공생 발전에 기여한다.



7 인사말

8 아시아연구소의 2015년

10 아시아 연구기반 구축사업

36 아시아 연구소 중점 추진사업
학술연구의 다양화 및 전문화 / 아시아 자료 아카이브로의 확장 / 글로벌 네트워크의 겹침과 펼침

40 학술활동

48 교류협력

49 아시아 기초연구 지원사업

50 아시아연구소 외부 연구지원사업

52 교육
KF Global e-Schcool Program / KOSSDA 방법론 교육 프로그램 / 동남아지역전문가 심화과정

54 학문후속세대
연구연수생, 연구와 교류를 통한 아시아 전문가 양성 / 아시아연구 동아리 활동 지원

55 출판
아시아리뷰 / 아시아연구소 총서 / 세계 속의 아시아연구 시리즈

58 미디어
홈페이지 / 뉴스레터 / 페이스북 페이지 / 언론에 비친 아시아연구소

60 후원 / 재정

61 연혁

62 사람들

한국학에 물줄기 둔 아시아연구 …
참여와 교류 통한 수로(水路)의 확장

인사말

올해도 지난 한 해의 주요 연구 성과 및 현황을 정리한 연차보고서를 발간합니다.
서울대 아시아연구소는 2009년 설립 후 대내외적으로 아시아 연구에 있어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서울대 아시아연구소만의 정체성을 확립하고자 지난 7년을 바쁘게 달려왔습니다.

아시아연구소는 '서양과 비서양'이라는 이분법적 사고를 벗어나 아시아 공동체가 독자적 주체로서 아시아 연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펼침(extension)으로써 아시아연구', '겹침(folding)으로써 한국연구' 라는 인식론적 틀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지난 한 해 아시아연구소에서는 아시아 자본주의, 아시아의 가족, 동아시아 초국경 네트워크라는 세 가지 과제를 설정하였습니다. 과제를 실천하면서 국내외 다양한 대학 및 기관들과 협력 연구를 통해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한국연구의 '펼침', 아시아 연구의 '겹침' 이 진일보한 결과입니다. 아시아 연구 분야의 글로벌 리더로서 앞으로 수행해야 과제가 무엇인지 재확인하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아시아연구소는 아시아기반구축사업의 질적 도약을 위해 연구 과제를 중장기적 관점으로 접근하고, 동시에 국내외 연구자들에게 전면 개방하고자 합니다. 개방적인 네트워크와 공모의 장을 마련하여 실질적인 연구 네트워크의 확장과 협력을 이룩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연구자들 간의 교류를 강화하고, 기관 대 기관이 협력하여 연구하는 토대를 마련할 것입니다. 이는 아시아 연구의 한국적 맥락을 강화하는 디딤돌이 되어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2015년에는 한국사회과학자료원이 아시아연구소로 이관되어 한 식구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성공적으로 진행해 온 아카이브 구축 및 사업과 더불어 일본, 대만, 홍콩을 비롯한 아시아 연구 기관과의 협조를 강화, 아시아연구 아카이브를 확장하고자 합니다.

숨 가쁘게 달려온 시간이 헛되지 않도록 앞으로도 노력할 것입니다. 아시아연구소가 아시아 연구의 글로벌 리더로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길에, 여러분과 함께하고자 합니다. 관심과 애정으로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3월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소장 강명구

아시아연구소의 2015년

2015년은 출범 6년째를 맞은 아시아연구소가 보폭을 조금 더 넓힌 해였다. 2014년에 이어 밖으로 글로벌 네트워크를 확산하면서 안으로 연구 및 활동의 내실을 기하는 데 한층 더 박차를 가했다.

새 식구와 함께 아시아연구의 보폭을 넓히다

아시아 및 유럽, 미주 지역 연구 기관과 적극 교류

'한국연구의 펼침으로서의 아시아연구, 아시아연구의 겹침으로서의 한국연구'는 궁극적으로 다양한 해외학자들의 아시아연구소 방문을 통해, 또 아시아연구소의 해외 연구기관과의 적극적 교류를 통해 실현되었다.

11월5일에 아시아연구소를 방문한 하토야마 유키오 일본 전 총리는 '광복 70년, 한일수교 50년에 한일관계를 다시 바라본다'는 강연을 통해 동아시아 공동체 창설을 역설한 바 있다. 베트남사회과학원 Nguyen Xuan Thang 원장을 비롯해 Chen Chu(대만 가오슝시 시장), Peter Sluglett(싱가폴대), Li Nan(중국사회과학원), Hayashi Kaori(동경대), Oka Hikori(도호쿠대), Jayati Ghosh(자와할랄네루대), Chang Cheng(홍콩대) 등 많은 아시아권 연구기관 학자 및 연구자들이 방문해 강연 및 아시아연구소와의 교류협력을 논의했다. 유럽 및 미주 지역 연구자들과의 교류도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었는데 Jeffrey Alexander(예일대), Glenn Morgan(카디프대), Nan Lin(듀크대), Philip Hirsch(시드니대), Markus Pohlmann(하이델베르크대) 등이 아시아연구소에서 펼친 열띤 강의와 런던대, 하이델베르크대, 라이든대, UC Berkeley, UC Davis, UCLA 등과의 협력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Nguyen Xuan Thang

Hayashi Kaori

Nan Lin

Jeffrey Alexander

아시아연구소는 또 지난 한 해 ICAS International Council에 함께하여 국제연구네트워크의 주요 기관으로 활약한 바 있으며, ICAS의 아시아연구 국제네트워크 확장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진행된 아프리카 가나에 패널을 조직하여 참여하였다. ICAS의 뉴스레터에 동북아시아 이슈를 소개하고 있고, 향후 아시아연구 우수도서 선정 과정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글로벌 플레이어로서의 위상을 높여나갈 것이다.

아시아연구 기반구축사업 질적 변화의 원년

지난 5년간 아시아연구 기반구축사업은 토대를 다지는 과정으로 Bottom-up보다는 Top-down방식을 취했다. 그런 가운데 3년째 진행되고 있는 지역센터, 즉 동북아시아,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와 대중문화프로그램을 비롯한 8개의 주제연구프로그램은 각각 지역과 주제에 맞는 기반을 구축할 수 있었다. 이를 토대로 2015년에도 전년에 이어 일반공동사업(미-중관계 프로그램), 토대사업(중앙아시아센터) 등의 한국연구재단사업 및 행정자치부 연구지원(시민사회 프로그램)을 수주하였다. 이로써 질적 우수성을 담보하는 아시아연구 기관으로 한층 발돋움하게 되었다.

더욱이 2016년에는 Call for Proposal을 통해 서울대를 비롯한 국내외 많은 연구자가 협업하는 새로운 아시아연구의 지평을 열고자 계획하고 있어, 명실공히 아시아연구 선도자로의 책임을 다하고자 한다 .

튼실한 학문후속세대 지원

신진학자지원 프로그램의 목적으로 진행하는 아시아연구소 2015년 박사학위논문상(SNUAC Dissertation Award)은 '임진전쟁기 강화교섭 연구'를 쓴 김경태 박사(고려대 졸업, 한국학중앙연구원 연구원)에게 돌아갔다. 500만원의 상금과 단행본 출간 시 추가로 지원하는 박사학위논문상은 연 1,200만원 지원 및 저술공간을 지원하는 박사논문저술지원사업과 함께 인문사회 신진학자들의 연구의욕 고취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한편, 2016년 5기에 접어드는 연구연수생 프로그램은 보다 실속을 다지는 프로그램으로 거듭나는 가운데 2015년 두 학기 동안 총 18명이 참여하여 연구 및 실무 경험을 쌓았다.

2015년도 박사학위논문상 시상식 기념사진

출판물 통한 아시아연구 새로운 대안과 방향 제시

2011년 6월에 창간된 아시아연구소 저널 〈아시아리뷰〉는 2015년 7월에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에 선정되었다. 경제, 사회, 문화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학문의 상호 융합을 시도하는 가운데, 새로운 대안과 방향을 제시하는 아시아연구 저널로 더욱 매진할 것이다. 또한 〈한중일 사회적 경제 Mapping〉, 〈중국의 부상과 중앙아시아〉, 〈한중일 청년을 말하다〉, 〈평화적 세계 전이의 국제정치〉, 〈글로벌 패러독스〉등의 단행본 출간은 아시아연구기반구축사업의 성과이면서 새로운 대안과 방향을 제시하는 아시아연구에 한 획을 그었다.

보이지 않는 것까지 데이터화

아시아연구를 리드하고자하는 아시아연구소의 노력은 한국사회과학자료원의 아시아연구소로의 이전을 통해 더욱 구체화되었다. 한국 연구 자료와 문헌의 통합 DB를 보유하고 있는 한국사회과학자료원이 아시아연구소와 공간 및 내용을 함께 함으로써 아시아연구소는 명실상부 아시아 관련 자료의 보고(寶庫)로 거듭나게 되었다. 세계 학자들이 아시아 관련 자료를 찾을 때 아시아연구소를 거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또한 유대감·배려감·인간의 행복과 같은, 중요하지만 보이지 않는 데이터까지 자료화 할 수 있는 최고의 자료원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아시아연구소의 행보는 해를 거듭하며 전진할 것이며 그런 가운데 아시아연구라는 저수지의 건강한 수원(水源)으로 오래도록 자리매김할 것이다.

아시아 연구기반 구축사업

아시아연구소는 국내의 아시아 권역별 지역연구와 국가적 차원에서 전략적 중요성이 증대하고 있는 주제연구를 결합한 '아시아 연구기반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아시아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한국사회의 성장발전에 중요한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들을 진단, 처방할 수 있는 아시아 지역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다.

2015년 아시아 연구기반 구축사업은 3개의 지역센터와 8개의 주제프로그램이 각자 주어진 연구와 활동을 활발히 펼친 가운데, 국내외를 망라한 연구활동과 SSCI급 논문 게재 및 단행본 출간 등의 성과를 거뒀다.

康店尔
西服
茂昌眼鏡公司
MAOCHANG
上海市第一食品商店
樂樂百商城
LELECHEN SHOPPING CENTRE

동북아시아센터는 세계 속의 한국, 한국 속의 세계를 연구하기 위하여 '방법으로서의 아시아'를 상정하고 있다. 한국과 북한, 그리고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 4개국과의 중첩적 상호관계 분석 및 질서 구축에 필요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동북아시아를 바라보는 시각은 지역 간 관계에 대한 시각과 더불어 아래로부터의 관점 등의 결합을 추구한다. 2016년에는 포로수용소에 대한 연구를 통해 동북아시아 지역의 역사적 유산과 흔적들에 대한 기초연구를 주요 연구방향으로 설정했다. 또한 다양한 연구단위, 시민사회와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동북아시아 지역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려 한다.

동북아시아센터

동아시아 냉전과 탈냉전 문화연구

연구 주제

2015년도 동북아시아센터는 동아시아 냉전과 탈냉전 문화 연구를 수행하였다. 동아시아는 1945년 이전의 일본을 중심으로 한 제국/식민지 경험을 공유하고 있고, 1990년대 탈냉전 이후 새로운 경제발전과 교류 협력의 증진으로 공동의 발전을 모색하고 있다. 동아시아에서 냉전과 산업화이후 과거의 역사적 유산을 문화적으로 재구성하여 새로운 경제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동북아시아센터는 이러한 새로운 흐름에 주목하고, 역사적 사회과학적 융합을 위한 학문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구체적으로 한국전쟁의 기억과 유산에 관한 연구, 전쟁포로에 관한 연구, 냉전하에서의 평화를 위한 노력에 관한 연구, 탈냉전 이후의 새로운 질서창출을 위한 협력, 정치 경제 뿐만 아니라 사회와 문화영역에서의 변화를 주목하고자 한다.

주요 성과

거제 포로소수용소 연구사업을 위해 2015년에는 연구소 자체적으로 기초연구를 수행했다. 이를 위해 냉전의 다양한 풍경과 현장 연구를 목적으로 답사 등을 실시했다. 국내에서는 연평도 등 냉전의 현장을 답사했고, 포로연구소에 대한 국제공동연구를 위해 포로 관련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이를 통해 중국과 홍콩, 대만의 연구자들과 네트워킹하고, 추후 공동연구계획을 구체적으로 논의했다. 특히 포로수용소라는 냉전의 상흔을 매개로 동북아시아인들의 공통 경험을 연구하며, 한국전쟁이라는 경험이 동북아시아에 남긴 유산과 과제를 가늠할 수 있었다. 이는 단순히 국가단위의 냉전 해체가 아니라, 구체적인 인적 교류와 역사적 해원(解寃)을 통해 새로운 평화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작업이었다.

두 번째로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위한 국제학술회의를 제주4.3평화재단과 공동으로 개최했다. 이를 통해 개번 메코맥 등 세계적인 학자들과 함께 동북아시아의 현안에 대해 토의했으며, 그 내용을 2016년에 책으로 엮어 출판할 예정이다. 동북아시아 평화의 가능성을 제주, 오키나와 등 주변부의 시각으로부터 모색하는 작업을 수행했다.

세 번째로 베이징 민족대학 박광성 교수, 중국 강서사범대학 음악연구소 공동콜로키엄, 대만 가오슝시의 천쥐 시장 초청, 대만사연구소의 종숙민 교수 등을 통해 중화권 사회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를 도모할 수 있었다. 시민사회 및 학계와의 교류를 통해 동북아시아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도모했으며, 추후 협력 연구의 기틀을 마련했다. 현재 동북아 지역에서는 중화권에 대한 다양한 이해를 도모하는 것이 필수적인데, 이를 다층적으로 수행했다고 볼 수 있다.

네 번째로 북한 관련 연구를 심화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북한대학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다. 북한의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연구는 다소 미진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동아시아에서 기타 여러 고등교육기관과 연구진과의 교류는 활성화되고 있지만, 같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고등교육기관의 실태에 대한 이해는 부족한 상황이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2015년에는 북한대학의 제도적 현황을 파악하는 연구를 수행했으며, 대학별, 학문분과별로 추가 연구를 점차 진행해나갈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대만/조선 소수자의 사회적 배제〉(2016 대만/한국 동시출판)에 대한 연구서를 위해 14편의 원고를 수집하고, 원고를 각각 중국어와

한국전쟁기 거제포로수용소 모습

한국어로 번역했다. 중화권의 학계와 보다 심화된 협력관계를 수립하고 이를 정례화하고 있다. 이런 일련의 작업들은 동북아시아에 대한 깊이 있는 사회문화적 이해를 토대로 새로운 지역 질서와 관계로 나아가는 길을 열고 있다.

향후 과제 및 비전

동북아시아센터는 식민/탈식민, 냉전/탈냉전을 중심으로 동북아시아의 다양한 사회문화현상을 연구하고 있다. 포로수용소 연구를 통해 동아시아 평화구상의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했으며, 동북아시아 지역의 다양한 연구자와의 교류 협력을 통해 동아시아적 시각의 수립의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탐구하고 있다. 다양한 현장연구와 문헌연구를 통해 동아시아의 특수한 역사경험을 설명하는 동북아시아의 개념을 형성하기 위해 매진하고 있다. 특히 2015년에는 2016년의 대선을 앞둔 대만과의 다양한 교류를 통해 대만 사회가 처해있는 딜레마와 방향성에 대해 이해할 수 있었으며, 양안관계가 한국에 주는 시사점 등을 인식할 수 있었다. 이후 이렇게 맺어진 다양한 연구협력 네트워크를 보다 충실하고 정기적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과제라고 할 수 있다. 특히 2016년에는 동아시아에서 대규모로 이루어지고 있는 창조적 문화산업단지나 역사유산산업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광주 비엔날레나 아시아 문화전당과의 협력, 거제나 통영과 같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도모하고 있다.

〈학술심포지움〉 거제도 포로수용소 세계와 만나다(2015.7.27)

연구 성과 목록

전갑생 외(2015). 통영 한산(추봉, 용초)도 포로수용소 기록화 연구용역사업 최종보고서

전원근(2015). 1980년대 〈선데이서울〉에서 나타난 동성애 담론과 남성 동성애자들의 경험. 젠더와 문화 제8권 2호

정근식(2015). China's Memory and Commemoration of the Korean War in the Memorial Hall of the 'War to Resist U.S. Aggression and Aid Korea'. Cross-Currents: East Asian History and Culture Review 4-1

정근식 외(2016). 서울대 통일기반구축 연구. 북한의 대학 : 역사, 현실, 전망

사람들

디렉터: 정근식(사회학과)

공동연구원: 김민환(아시아연구소), 전갑생(아시아연구소), 주윤정(아시아연구소)

객원연구원: 야마토 유미코(아시아연구소)

2015년 말, 정치안보, 경제, 사회문화를 세 축으로 하는 지역공동체를 공식 출범시킨 아세안은 지역 경제통합과 공동번영을 향한 기대감을 키워가고 있다. 동남아시아센터는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동남아시아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대한 학제 간 연구와 교육을 체계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내에서 동남아시아 연구를 활성화하는데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동남아시아센터

아세안의 역동적 변화에 조응하는 양대 연구기반 구축

연구 주제

동남아시아센터는 2012년 9월부터 한국연구재단이 지원하는 신흥지역연구사업을 통해 해양부 동남아 지역에 대한 연구('문화에 민감한' 시장진출 전략과 지속 가능한 경제협력) 2단계 연구사업을 수행 중이다. 또한, 2014년 12월부터는 한국연구재단의 일반공동과제(메콩 유역의 개발과 환경 협력의 딜레마와 거버넌스) 2차년도 연구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후자의 연구사업은 2013년 이후 아시아연구소 기반구축 사업의 지원을 받아 2년간의 인큐베이팅을 거쳐 독립연구단으로 확대 개편된 것이다. 양대 축의 구성 기반이 만들어짐에 따라 동남아시아센터는 명실상부 동남아 전 지역을 포괄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였다.

메콩강 골든 트라이앵글

주요 성과

2015년 아세안 경제공동체 출범과 함께 동남아 지역에 대한 통합적 연구수요가 확대되었다. 이에 부응하여 향후 통합적인 동남아시아 연구 허브로서의 위상을 지향하기 위하여 동남아센터는 기반구축연구를 통해 지역의 포괄적 이슈와 학제 간 융합 및 확산 연구를 수행하였다. 동남아시아센터는 인류학, 정치학, 경제학, 경영학 등 다양한 학문 분과의 전문가로 구성된 학제적 공동연구진을 중심으로 다양한 학술연구 활동, 정책자문, 네트워크, 지식과 정보의 사회화를 위해 노력해왔다.

구체적으로는 총 11회의 국내외 석학초청 기획 강연, 공동연구진의 특강 및 자문을 통한 지역 정보와 전문 지식의 사회화(총 44회), 시의성 있는 주제 분석 및 정책적 자문을 담은 보고서 발간(총 5회), 대중강연 및 집합 교육 프로그램 실시(총 3회), 국내학술대회의 기획 및 세션 참여(2회), 총 27편의 저서와 논문을 발표 및 출간하였다. 또한, 연구조교를 단순한 행정 보조인력을 넘어선 학문 후속세대로 인정하고 자체 세미나와 현지조사 등을 지원한 결과, 두 편의 수준 높은 지역연구 석사 논문이 완성되었다.

마지막으로 동남아센터의 지속가능성 제고 및 연구기반 개선을 위한 새로운 정책용역과제를 수행하였다. 본 과제는 한국의 발전경험에 대한 국내의 학술성과와 신흥지역에 대한 국내의 지역연구 성과를 결합함으로써, 신흥지역과 한국의 상호 이해 증진과 공동의 발전을 위한 '창의적 지식공유연구 플랫폼' 구성을 정책과제로 제시하였다.

인도네시아 제사상 차림

향후 과제 및 비전

2015년 말에 공식 출범한 아세안은 2020년까지 GDP 3조억 달러 규모의 6번째로 큰 경제지대로 성장할 것을 예측하고 있다. 또한, 2020년까지 연간 2.3조억 달러의 구매력을 갖춘(현재의 2배) 전망 높은 신흥 소비시장으로 부상할 것이다. 이러한 변화에 조응하기 위해 신흥지역연구는 해양부 동남아 지역에 대한 연구의 특징인 이슬람 문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쇼핑, 음식, 주거, 금융 등 특화된 소비시장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다른 한편으로 아세안에는 여전히 외부세계의 개발협력을 필요로 하는 개발도상국들이 대륙부 동남아를 중심으로 포진하고 있다. 따라서 아세안의 지속가능성 증진을 위해서 경제개발협력뿐 아니라 환경협력을 위한 다양한 노력도 함께 병행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동남아시아센터는 10개국의 지리적 범위를 넘어 아시아 전역 및 세계와 교류하는 현실에 주목하면서 현실성 있는 주제(이슬람 문화, ODA, 환경 등)를 중심으로 아시아연구소의 다양한 연구단위와 더불어 공동연구를 발전시키고자 노력할 것이다.

한아세안센터 열린강좌 시리즈: 동남아 경제 거인들의 어깨에서 아세안 경제 조망하기(2015.6.4-7.9)

연구 성과 목록

박번순 외(2015). 〈동남아 경제 거인들의 어깨에서 아세안 경제를 보다〉. **한-아세안센터**

이요한(2015). 메콩 유역의 국별 개발 전략과 협력 거버넌스의 현황과 과제. **동남아연구 25권 2호**

엄은희(2015). 메콩의 에너지 경관. **공간과 사회 54권**

이상국(2015). 대 메콩 지역(Greater Mekong Subregion) 연계성의 이상과 현실: 도로 교통을 중심으로. **공간과 사회 54권**

이준표(2015). 메콩강 유역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법적 과제. **공간과 사회 54권**

사람들

디렉터: 오명석(인류학과)

공동연구원: 강명구(언론정보학과), 김태윤(국제기술농업대학원), 김형준(강원대), 유창조(동국대), 윤순진(환경대학원, 메콩연구 책임자) 이상국(연세대), 이수현(동국대), 이승호(고려대), 이응철(덕성여대), 이준표(아시아연구소)

전임연구원: 엄은희(아시아연구소), 이요한(아시아연구소), 이지혁(아시아연구소), 정법모(아시아연구소), 최경희(아시아연구소)

2015년에 중앙아시아센터는 중앙아시아 지역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그 속에 나타난 삶과 공동체의 특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현상에 대해 깊이 있는 작업을 수행했다. 유라시아라는 공간적 맥락을 고려한 가운데 이 지역의 형성 과정과 주변 지역들과의 역동적 관계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자신들이 살아온 삶을 통해 이 지역 역사와 현실의 단면을 증언해주는 고려인 전통생활문화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있으며, 이 지역에 대한 입체적인 이해를 위해 필수적인 사회현상으로서의 이슬람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중앙아시아센터

중앙아시아 지역의 형성과 역동성

연구 주제

중앙아시아센터는 '중국의 부상과 중앙아시아의 대응'을 살펴본 전년도 연구의 후속 작업으로 '중앙아시아 지역의 형성과 역동성: 유라시아 공간의 주변에서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아시아연구소 기반구축 2차년도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2014년부터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하고 있는 토대연구사업 '현지조사를 통한 중앙아시아 고려인의 전통생활문화 총서 및 DB 구축'의 1년 차 연구를 완료하고, 2년 차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2015년 11월부터는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중앙아시아 이슬람의 역사적 경험과 현재적 선택'이라는 주제로 공동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우즈베키스탄 페르가나시 단오 행사 부채춤

주요 성과

중앙아시아센터는 기반구축사업의 수행을 통해 중앙아시아 지역의 형성 과정, 내전과 민족 갈등, 국제적 정치경제질서의 변동 속에서 발현되었거나 발현되고 있는 역사적·민족적·지정학적·지경학적 역동성을 살펴보는 작업을 매듭짓고 있다. 기반구축사업 연구진은 역사적으로나 현재적으로 이 지역 국가들이 주변 강국들과 적극적으로 상호작용하는 대외적 역동성을 보여주고 있음과 동시에, 소비에트 정책이나 이슬람 등의 영향으로 독특하고 역동적인 내부적 지역 형성의 과정을 겪고 있음을 보여주는 여러 정황과 증거들을 찾아볼 수 있었다.

중앙아시아센터 내 토대연구팀은 1년 차 사업으로 카자흐스탄 현지조사를 수행함으로써 이 지역 고려인의 전통생활문화에 관한 자료를 광범위하게 수집했다. 연구팀은 알마티, 카라간다, 크즐오르다와 같은 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현지조사를 진행하고, 도시 주변의 농촌 지역과 과거의 수용소 등을 방문하여 고려인의 삶의 궤적을 추적하면서 자료를 수집했다. 그리고 수집된 자료를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분석하는 작업을 완료했다.

우즈베키스탄인들의 이슬람 문화

향후 과제 및 비전

중앙아시아센터는 중앙아시아가 하나의 지역으로서의 특성을 강화해가는 과정에서 강대국들의 협력에 의한 지역정치 구도를 형성하는 일 외에도 역내 국가들의 내적 발전 동력과 역학을 밝히기 위해 역사적, 문화적, 정치적 유산과 그 현재적 영향을 살피는 작업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따라서 오랜 역사를 거쳐 현재 '중앙아시아의 정치·경제·사회적 일상의 중요한 일부를 구성하는 사회현상으로서의 이슬람'이라는 새로운 주제에 대한 연구에도 착수하게 되었다. 다양한 시대적 배경하에 사회와 개인의 여러 층위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중앙아시아 이슬람의 특징과 역할에 대한 연구는 중앙아시아의 내적 역동성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 이슬람과의 비교연구를 위한 기반을 제공함으로써 이슬람 연구 전반의 폭을 확장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백주현 주카자흐스탄 한국대사 초청강연(2015.4.1)

연구 성과 목록

신범식 외(2015). 〈중국의 부상과 중앙아시아〉. 진인진

윤익중(2015). 키르기스스탄의 외교정책과 대중국 관계발전: 새로운 도전과 기회. 국제 · 지역연구 24권 1호

고가영(2015). '아무르의 캘리포니아': 19세기 러시아 골드러시와 '젤투가 공화국'(1883~1886). 사총 85권

양승조(2015). 17세기 후반~18세기 전반 모스크바국의 동방진출과 동투르키스탄의 주변화(周邊化): 준가르 제국을 중심으로. 역사문화연구 제54집

신범식(2015). 중국의 부상과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대응. 슬라브학보 제30권 2호

김영식(2015). 투르크메니스탄의 경제발전과 에너지프로젝트: 중국을 중심으로. 슬라브학보 제30권 2호

정재원(2015). 중앙아시아와 중국 신장, 그리고 위구르 문제: 기회와 위기의 모순적 공존. 슬라브학보 제30권 2호

조영관(2015). 중앙아시아와 중국의 에너지 협력의 특징과 유라시아 지역에 대한 영향. 슬라브학보 제30권 2호

김태연(2015). 1990년 및 2010년 키르기스스탄 오쉬 사태: 민족 간 폭력의 발발 기제를 중심으로. 중소연구 제39권 제3호

사람들

디렉터: 신범식(정치외교학부)

공동연구원: 강명구(언론정보학과), 강정원(인류학과, 토대연구 책임자), 고가영(아시아연구소), 남영호(신한대), 오원교(경북대), 정형호(전북대)

전임연구원: 김태연(아시아연구소), 양승조(아시아연구소), 최아영(아시아연구소)

아시아센서스 프로그램의 2015년 역점사업으로 아시아연구소로 이관된 한국사회과학자료원(Korea Social Science Data Archive, KOSSDA)은 사회과학 분야 연구 자료의 수집과 보급을 선도하는 한국의 대표적 사회과학 자료센터이다. KOSSDA는 개인 연구자들 및 연구기관들로부터 기탁받은 자료들을 바탕으로 DB를 구축함은 물론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KOSSDA는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이관을 계기로 사회과학 공공 인프라의 역할을 확대해 나가고 아시아 주요 자료센터들과의 협력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한국사회과학자료원

디지털 규장각, 사회과학 공공 인프라 역할 확대

주요 사업

KOSSDA는 자료의 수집과 수집된 자료의 DB 구축, 구축된 DB의 보급, DB 구축 및 사회지표 연구와 방법론 교육을 주요 사업으로 삼고 있다. KOSSDA는 개인연구자들과 연구기관들이 산출하는 다양한 자료들을 기탁받아 수집하고 이를 메타데이터와 함께 DB로 구축하고 있으며, 구축된 DB는 회원제를 통해 보급하고 있다. KOSSDA는 자료 이용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방법론 교육 프로그램을 학생들과 연구자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한국사회과학자료원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이관 개원식(2016.1.22)

DB 구축 및 보급

KOSSDA가 수집하여 DB로 구축하는 자료에는 조사자료, 통계자료, 면접 및 구술 자료, 기록문서, 관찰기록, 연구보고서, 연구단행본, 전자저널 등 모든 종류의 양적 및 질적 자료와 문헌이 포함된다. KOSSDA는 2016년 현재 조사자료 2,179건, 통계자료 1,903건, 질적자료 211건 등을 DB로 구축하여 이용자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KOSSDA가 소장한 주요 자료로는 한국인의 가치관과 태도의 국제비교를 가능하게 해주는 '한국종합사회조사', 개인의 고용상태 변동을 추적할 수 있게 해주는 '한국노동패널조사', 통일과 북한에 대한 인식 변화를 보여주는 '통일의식조사', 전국 단위 범죄피해 수준을 파악할 수 있게 해주는 '전국범죄피해조사', 충남 13개 지역의 마을사를 알게 해주는 '충남지역 마을 현지조사' 등이 있다.

KOSSDA의 DB는 KOSSDA 회원으로 가입한 전국 37개 대학과 112개 연구기관을 통해 보급되고 있으며, 연간 이용 자료는 약 1,500여 건에 이른다. KOSSDA는 해외 한국학 연구자들을 위해 주요 자료의 DB를 영문으로도 제공한다. KOSSDA의 영문 DB는 국제교류재단의 웹사이트를 통해 미주, 유럽, 아시아 등 전 세계 102개 대학에 제공되고 있다.

연구 성과

KOSSDA는 자료 관련 연구의 일환으로 한국연구재단 기초학문자료센터(KRM)의 사회과학 분야 DB 구축 사업을 매년 수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한국연구재단 지원과제로부터 산출된 연구성과물(원자료와 중간산출물)을 수집하여 DB로 구축하는 일을 주요 과업으로 삼고 있다. KOSSDA는 2015년 사업에서 한국연구재단 지원과제들로부터 수집한 188건의 연구성과물을 KRM 시스템(www.krm.or.kr)에 DB로 구축하였다.

KOSSDA는 사회지표 DB 구축을 목적으로 통계청의 〈한국의 사회동향〉 보고서 발간 사업을 매년 수행하고 있다. 〈한국의 사회동향〉은 한국인의 삶의 질 상황을 인구, 가족과 가구, 건강, 교육, 노동, 소득과 소비, 문화와 여가, 주거와 교통, 환경, 안전, 사회통합 등 11개 영역에 걸쳐 보고하는 연차적 간행물이다. KOSSDA는 이 보고서의 2008년 창간호를 개발하였고, 현재까지 기획과 편집을 주관하고 있다. 2015년 〈한국의 사회동향〉 보고서에서는 고령화와 노인 삶, 노동시장과 취업, 세대 간 격차 등이 주요 이슈로 다루어졌다.

아울러 광복 70주년을 맞아 아시아센서스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조선일보와 공동으로 전국 단위의 국민의식조사를 기획, 시행하였다. 이 조사를 통하여 지난 70년간 한국 사회가 겪은 드라마틱한 변화를 회고하고 평가하되 과거 10년, 20년 전과 비교한 사회의식의 변화를 추적하여 미래의 변화도 예측하고자 했다. 조사결과는 2015년 8월 조선일보 특집기사로 보도되었고, 단행본으로도 발간될 예정이다.

한국사회과학자료원 새식구

사람들

디렉터: 이재열(사회학과)

공동연구원: 김석호(사회학과), 박원호(정치외교학부)

연구원: 김대훈(자료개발), 김혜진(질적자료), 이상운(통계자료), 진윤아(방법론교육), 한아름(문헌자료), 허혜옥(조사자료)

대중문화 프로그램은 한국연구재단의 글로벌연구네트워크 사업 수행 과정에서 한국과 중국 창의세대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했다. 2015년에는 칭화대와의 공동 비교연구 프로젝트를 위한 실질적인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였다. 또한 한국과 일본 청년의 삶을 비교하면서 역시 한·일 청년이 처한 삶을 가까이에서 구체적으로 들여다 본 결과, 서구 청년들과는 차별화된 양태를 지님을 알 수 있었다. 이와 더불어 〈한중일 청년을 말하다〉라는 단행본을 통해 동아시아 청년들의 현실을 더 많은 대중과 공유하고자 했다.

대중문화 프로그램

한중일 청년, 그들의 꿈과 고뇌를 디자인하다

연구 주제

2015년도 대중문화 프로그램의 핵심 사업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는 한국연구재단 글로벌연구네트워크 사업의 하나로 진행한, '창의 세대(creative generation)' 개념을 중심으로 동아시아 청년들을 연구하는 '동아시아 창의세대의 비교연구–한국과 중국을 중심으로'이다. 두 번째는 '한국과 일본 청년의 삶의 상태에 대한 비교연구'이다.

중국판 비정상회담 <世界青年说> 한 장면

주요 성과

우선 '동아시아 창의세대의 비교연구' 프로젝트에서는 국제공동연구의 파트너인 베이징 칭화대 진젠빈(金兼斌) 교수팀과 적극 교류하며 국제비교연구를 위한 이론적 논의, 현장 방문, 파일럿 인터뷰 등을 수행하였다. 또한, 2016년 상반기에 수행될 국제비교를 위한 서베이 문항을 만들고 정교화하는 데에 심혈을 기울였다. 수차례의 미팅과 공동워크숍을 통해 서 서로의 연구성과를 점검하고 공동연구에 필요한 실질적인 논의들을 진행했다. 연구책임자인 김홍중 교수는 2015년 이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서바이벌, 생존주의, 그리고 청년세대'를 비롯한 두 편의 논문을 주요 학술지에 게재하면서 연구의 이론적 토대를 마련했다.

'한국과 일본 청년의 삶의 상태에 대한 비교연구'의 경우, 여러 데이터와 문헌들을 검토하며 실질적으로 수행 가능한 비교연구의 틀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는 일본 내각부에서 2013년도에 실시한 국제 청년의식조사 '平成25年度我が国と諸外国の若者の意識に関する調査(International Survey of Youth Attitude 2013)' 자료를 중심으로 요인분석, 군집분석 등을 실시하여 한국과 일본 청년들의 자기 자신 및 사회에 대한 태도, 감정상태, 현실적 문제에 대한 인식 등이 어떤 양태로 나타나는지를 비교 분석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한국과 일본의 청년들은 단일한 집단이 아니며, 특히 한국과 일본에서는 적극적으로 경쟁에 뛰어들어 '성공'을 도모하는 '꿈꾸는' 청년들과 미래에 대한 희망과 적극적인 생존경쟁의 논리로부터 뒤떨어진 청년들이 양극화된 채로 다수를 차지함으로써, 상대적으로 건강하고 사회참여에 적극적인 청년의 비중이 높은 서구의 청년들과 차별화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 내용은 지난 8월 일본 리츠메이칸대학에서 열린 '제10회 차세대 연구자 포럼'과 5월 호주에서 열린 'International Convention of Asia Scholars' 등 국제학회 및 포럼에서 발표되기도 했다.

향후 과제 및 비전

위의 핵심 사업과 관련하여 대중문화 프로그램에서는 2015년 한 해 동안 네 차례의 '청년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를 통해 미술, 문학, 방송, 웹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청년들과 그 분야에서 청년을 다루어온 방식을 심층적으로 탐구했다. 현장의 청년 예술가-활동가-창의산업 종사자들과 학계의 연구자들 간의 만남은 많은 생산적 논의를 이끌어냈다.

앞으로도 현장과 연구 간의 보다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교류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또 한중일 청년들의 꿈과 고뇌를 모아 〈한중일 청년을 말하다〉라는 제목의 단행본으로 출간하였다. 이는 아시아연구소 대중문화프로그램(韓), 중국사회과학원 사회학연구소(中), 일본청년연구회(日) 등 한중일 청년 관련 연구기관 연구자들이 함께 콘퍼런스 및 논의를 거쳐 탄생한 데 의의가 있다.

연구 성과 목록

강명구·김홍중·신혜선 편(2016). 〈한중일 청년을 말하다〉. 진인진

김홍중(2015). 서바이벌, 생존주의, 그리고 청년세대 : 마음의 사회학의 관점에서. 한국사회학 제49집 제1호

성연주·김홍중(2015). 힙합장, 힙합 진정성, 그리고 상징투쟁_한국과 미국의 컨트롤대란 사례연구. 문화와사회 제18권

강명구·신혜선·양수영·우창쉐(2015). 한국과 중국 시청자의 드라마 취향 프로파일 비교. 한중인문학연구 49권

〈특별강연〉 소셜 미디어 시대의 과학 커뮤니케이션 (2015. 11. 12)

사람들

디렉터: 김홍중(사회학과)

공동연구원: 강명구(언론정보학과), 김석호(사회학과), 신혜선(아시아연구소), 이준환(언론정보학과), 주윤정(아시아연구소), 한규섭(언론정보학과)

미-중관계 프로그램(PUCR)은 미-중 관계에 대한 광범위한 학술적·정책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한국과 미국, 그리고 중국의 연구자들 간 활발한 정책토론과 학술교류의 장을 제공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정기적인 미-중 관계 월례 세미나 개최, 학술 워크숍 개최 및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미국과 중국의 관계를 다루는 학술 공동체 형성의 지속 가능성을 도모하는 동시에 다양한 국내외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혜안을 공유하고, 미-중 관계에 대한 학술 및 정책적 이해를 제고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있다.

미-중관계 프로그램

선도국과 부상국의 인식과 작용 및 중요성

연구 주제

미-중관계 프로그램의 주요 연구 목적은 중국의 '부상'과 '세력전이(power transition)'의 가능성에 대한 연구와 미-중 관계가 동아시아 및 한반도에 미치게 될 영향에 대한 실증적 연구를 수행하는 데에 있다. 이를 위해 세미나, 학술 워크숍 개최와 더불어 19~21세기 세력전이 사례를 통해 미-중간 상호 인식의 작용과 그 중요성을 살펴보는 미-중 관계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해왔다. 선례를 통해 21세기 미-중간의 역학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분석하는 것은 미국에서 중국으로의 패권 이전이 평화적으로 유도할 방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매우 큰 의미를 지닌다.

파룬궁 탄압에대한 시위현장

주요 성과

미-중 관계 연구프로그램의 2015년 연구 활동은 총 세 가지 영역으로 나뉜다. 첫째, 미-중 관계 영역에서 우수한 국내외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이에 대한 학술적·정책적 이해를 제고하는 세미나를 총 6차례 개최했다. 그 중 2차례는 라운드 테이블로 진행했다.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프로그램의 구상과 더불어 미국과 중국의 관계에 대한 학술적, 정책적 이해를 증진하고자 노력했다.

둘째, 2013년부터 지속되고 있는 학술 워크숍 시리즈로, 2015년 11월 일본 동경대 대안정책연구소(PARI)와 공동으로 '제4차 미·중 관계 및 동아시아 안보에 대한 한·일 대화'를 개최하였다. 위 학술 워크숍은 한국과 일본 전문가들 간의 토론을 통해 학술 공동체라는 정체성을 구성하고 지속적인 상호 교류를 이어나가는 기회를 가졌다.

셋째, 본 프로그램이 진행하는 두 번째 프로젝트의 성과를 담아내는 단행본인 〈평화적 세력전이의 국제정치〉(서울대 출판문화원)가 2016년 3월 '아시아연구 총서 시리즈'를 통해 출간될 예정이다. 본 단행본은 19~20세기의 영국과 미국 간에 일어난 세력 전이의 사례를 살펴보고, 이와 같은 '평화적 세력전이'의 사례가 21세기 미-중 관계의 동학에 주는 학술적, 정책적 함의를 모색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고 할 것이다.

뉴욕 차이나타운 중국 상가 지역의 전경

향후 과제 및 비전

본 프로그램에서는 2015년에 총 3개 국가(한국, 중국, 일본)의 10개 기관 및 대학으로부터 강연자를 초청해 세미나를 개최하고, 한국과 일본의 미-중 관계 전문가들과 다양한 교류를 하는 학술 워크숍을 열었다. 활발한 교류를 통해 미-중 관계 및 아시아에 대한 폭넓은 시야를 확보하고자 노력했다. 2016년도에는 특히 동아시아 여러 국가가 미-중 관계의 민감한 딜레마에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대해 다양한 세미나 및 학술 워크숍 시리즈를 기획하여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아시아연구소의 대내외적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연구 성과 목록

정재호 편(2016). 〈평화적 세력전이의 국제정치〉. 서울대 출판문화원

Jae Ho Chung(2016). The Rise of China and East Asia: A New Regional Order on the Horizon?. Chinese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1, No. 1

Hun Joon Kim(2016). Will IR Theory with Chinese Characteristics be a Powerful Alternative?. Chinese Journal of International Politics, Vol. 9, No. 1

〈미-중 관계 세미나〉 No.15 '빈번해지는 미 · 중 사이의 딜레마: 한국의 해법은?'(2015.6.7)

사람들

디렉터: 정재호(정치외교학부)

공동연구원: 김헌준(고려대), 박종희(정치외교학부), 안두환(정치외교학부)

민주주의와 경제발전 프로그램은 사회적경제와 시민민주주의의 연구 및 확산에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2015년도에는 사회적경제의 과정과 동태적 특징에 초점을 맞춰 연구를 수행했다. 특히 사회적 경제의 '과정·동태적' 특징을 규명하기 위해 노력함과 동시에 단행본·논문 출간, 콜로키엄 및 학술대회 발표, 그리고 수업과 언론보도를 통 한 시민교육 등 다양한 형태의 학술활동을 진행하였다. 향후 사회적경제와 시민민주주의의 상관성 및 시너지 효과에 대한 보다 분석적인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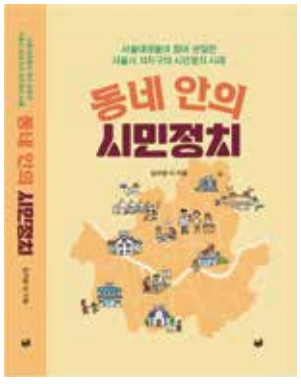
민주주의와 경제발전 프로그램

사회적경제와 시민민주주의

연구 주제

민주주의와 경제발전 프로그램은 3차년도(2015년)에 주로 사회적경제와 시민민주주의에 초점을 맞춰 연구를 수행했다. 2차년도에 진행한 연구가 사회적경제의 '조직·제도적 측면'과 '환경·거시적 측면'에 관한 것이었다면, 2015년에는 거버넌스나 사회혁신, 관련 제도나 조직의 운영 등 사회적경제의 '과정·동태적 특징'을 규명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했다. 아울러 서울시 자치구 사례연구를 통해 사회적 기업가정신, 시민정신, 사회통합, 지역발전 등 사회적 경제의 속성 및 기능이 시민민주주의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음을 밝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민주주의와 경제발전 프로그램은 우선 사회적경제를 분석하면서 어떤 조직이 '사회적경제 조직이냐 아니냐?'하는 식의 획일적인 개념화와 정태적인 유형화 방식을 지양하고, 각 조직이 어느 정도 사회적 경제성을 띠고 있는가를 기준으로 연구를 수행하여 사회적경제 생태계의 동태적인 모습을 포착·규명할 수 있었다. 또한, 서울시 자치구 사례연구를 통해 실제 한국의 시민정치가 실현되는 방식과 성과에 대한 객관적인 접근을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지역(local) 거버넌스의 현황 및 작동기제에 대한 생생한 정보를 수집하고 정리하였다.



주요 성과

민주주의와 경제발전 프로그램은 2013년부터 한·중·일 3국의 사회적경제 조직 현황과 제도적 성격, 발전 과정을 살펴보는 연구를 수행하고, 〈한중일 사회적경제 Mapping〉을 출간했다. 본 프로그램 연구원들은 단행본뿐 아니라 세 편의 논문을 출간했다.

본 프로그램은 지난 1년간 해외학자초청특강, 한국정치연구소와의 공동 콜로키움, 주요학술대회 발표 등의 학술활동을 수행했다. 2015년 3월 Barbara Allen 교수의 강연을 시작으로, 5월 이후 '시민정치와 시민민주주의'라는 주제로 현재까지 총 9회의 정기 콜로키엄을 개최하였다. 디렉터인 김의영 교수와 미우라 히로키 연구원은 '2015 한국학 세계학술대회(8월)'에서 '협동조합의 혼종성에 대한 학제간 연구'를 발표하였으며, 연구보조원들 역시 '동네 안의 시민정치: 서울시 자치구 사례'를 발표했다. 9월에는 김의영 교수와 연준한 연구보조원이 미국정치학회(APSA)에서 한국 민관 거버넌스 사례에 대한 발표를 수행했다. 10월에는 프로그램 연구원들이 '사회과학대학 설립 40주년 기념학술대회' 발표를 통해 사회적경제의 학제 간 연구 기틀을 마련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프로그램은 시민정치에 대한 단행본을 출판했다. 김의영 교수는 2015년 1학기에 개설된 '시민정치론' 수업 수강생 및 연구보조원들과 함께 서울시 자치구의 생활정치 사례를 참여 관찰하고, 이를 시민민주주의의 틀로 분석하여 〈동네 안의 시민정치〉 단행본을 출간하였다. 이 과정에서 주요 일간지(중앙일보)와 협업하여 창간 50주년 기념 기획기사 '이젠 시민이다' 시리즈를 연재하였다.

일본 재래시장의 모습

향후 과제 및 비전

사회적경제의 혼종성과 다양성은 사회 구성원들의 참여와 결합하여 새로운 형태의 경제원리 및 민주주의를 추동해 낼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적경제 제도·정책·전략, 사회적경제와 집합행동, 사회적경제와 주민자치, 사회적경제와 거버넌스, 사회적경제와 민주주의, 사회적경제와 시민정치, 사회적경제와 정치적·사회적 기업가의 역할(political/social entrepreneurship) 등 다양한 주제와 이슈에 초점을 두고 사회적 경제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또한, '참여의 미덕'을 중시하는 시민정치와의 시너지 효과에 대한 보다 분석적이고 본격적인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연구 성과 목록

김의영 외(2015). 〈한중일 사회적경제 Mapping〉. 진인진

김의영·임기홍(2015). 한국 사회적경제 조직 지형도. OUGHTPIA 제30권 제1호

미우라 히로키·이상직·연준한(2015). 일본 사회적경제의 조직 지형. 한국정치연구 제24집 제2호

민주주의와 경제발전 프로그램과 서울대생들이 참여 관찰한 서울시 자치구의 시민정치

사람들

디렉터: 김의영(정치외교학부)

공동연구원: 권헌익(케임브리지대), 미우라 히로키(한국정치연구소), 안도경(정치외교학부), 한신갑(사회학과)

시민사회 프로그램은 '한국 시민사회 지형도 구축' 프로젝트를 바탕으로 급변하는 전 지구화적 맥락에서 한국 시민사회단체들이 어떻게 대응하고 적응하는지 시민사회단체의 활동 영역의 지형변화를 추적했다. 아울러 각 지역의 다양한 사회적 경제조직 연구를 통해 한국 시민사회는 사회적 가치가 일상적인 삶으로 연결되어 있지 못하며, 그 결과 협동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보다 사업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가장 큰 한계임을 알 수 있었다.

시민사회 프로그램

시민사회 및 지역 협동조합 활성화의 가능성과 한계

연구 주제

시민사회 프로그램의 2015년도 핵심 사업은 '한국 시민사회 지형도 구축' 프로젝트와 '지역 협동조합 활성화 방안 연구'를 들 수 있다. 전자는 한국 시민사회 기초통계구축사업으로 2014년에는 국무총리실, 2015년에는 행정자치부의 연구지원으로 수행하였다. 후자는 한국 시민사회가 사회적 경제 영역에 어떻게 개입하고 있는가를 지역에 기반을 둔 사회적 경제 조직(협동조합,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 등)의 활동에 대한 사례 조사를 통해 그 가능성과 한계를 분석하였다.

전주 남부시장 청년몰

주요 성과

시민사회 프로그램은 지난 3년 동안 한국 시민사회 지형도 구축사업을 단계적으로 수행하면서 한국 시민사회 기초통계의 핵심유형, 시민사회의 변화 방향, 그리고 기초통계구축을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지금까지 한국 시민사회단체에 기초 자료는 행정자치부의 비영리등록 민간단체 자료와 한국민간단체총람이라는 두 가지 유형으로 수집되었다. 두 유형 자료 전체에 대한 확인 작업을 통해 체계적인 자료 관리 및 자료 업데이트가 이루어지지 않아 지난 10여 년 동안 수집된 자료의 신뢰성이 의심된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다. 예산 부족 및 연구관리 주체의 부재가 핵심적인 원인이었다.

또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은 단체 등록에만 초점을 맞추지만, 단체 정보 관리에 대한 규정이 없어서 등록 단체의 이후 변화(주소변경, 해산 등)를 반영하지 못했다는 것도 확인하였다. 결과적으로 2015년 한국 시민사회단체 기초자료는 현재 활성화되고 있는 풀뿌리 단체 및 새로운 영역(사회적 경제활동,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 지원, 국제개발 및 협력 등)으로 그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시민사회 단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자료의 신뢰성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법 및 제도의 개정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며, 시민사회단체 정보의 지속적 관리 및 업데이트를 위해서는 전국 단위의 시민사회단체 데이터베이스 관리 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정책과제로 제시하였다.

부산 감천 문화마을

기획재정부의 지원으로 수행한 지역협동조합에 대한 성공적인 활동으로 평가받는 지역의 다양한 사회적 경제 조직에 대한 사례조사 연구는 여러 문제와 과제를 남겼다. 최근에 시행한 8,000개까지 증가한 협동조합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는 매우 충격적이다. 현지 조사를 통해서 각 지역에서 실제 활동하는 곳은 10% 정도에 머물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12개 지역(마포, 종로, 원주 외)을 선정하여 각 지역에서 보여주는 사회적 경제 생태계 특징, 성공 요인, 그리고 한계를 방문 및 인터뷰 조사를 통해 진행하였다. 주요 결과는 지역공동체와 경제공동체로 쉽게 동일시하는 것이 문제이며, 협동조합을 지나치게 운동의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연구 성과 목록

임현진(2015). 한국의 국가와 시민사회 관계: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NGO의 과제. **학술원논문집 인문사회과학편 제54집 2호**

공석기·임현진(2015). 지역기반 협동조합 활성화 방안연구. 기획재정부 협동조합운영과

김태균(2015) 국제개발에서 사회발전으로: 한국 사회의 국제개발 정책에 대한 비판적 고찰과 사회발전론의 재조명. **경제와사회 109호**

공석기외 (2015) 2015 비영리민간단체 DB구축사업보고서: 전수조사 및 표본조사. 행정자치부 민간협력과

원주시 협동조합 지원센터 방문 후

사람들

디렉터: 임현진(서울대 명예교수)

공동연구원: 공석기(아시아연구소), 김성규(아시아연구소), 김태균(국제대학원), 박명준(한국노동연구원), 정영신(제주대)

아시아-글로벌 경제질서 프로그램의 2015년도 핵심사업은 '혁신·창조 활동의 아시아로 의 이동에 따른 세계 경제질서의 변화 방향'이다. 이 연구사업을 통해 '이동과 흐름에서 본 아시아(Transnational Asia)'라는 관점에서 아시아의 혁신·창조 활동을 분석하고, 이를 근거로 관련된 세계 경제질서의 변화 방향에 대한 새로운 개념화 및 연구 패러다임의 변화를 모색하고자 하였다. 또한, 아시아 지역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지역통상체제에 관한 연구의 일환으로 '메가 FTA의 등장과 원산지 규정', '세계통상체제에서의 대중국 상계조치 부과 문제' 등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아시아-글로벌 경제질서 프로그램

아시아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세계 경제질서의 변화

연구 주제

아시아-글로벌 경제질서 프로그램(Center for Asia and Global Economic Order, 약칭 CAGEO)은 아시아지역의 개도국 및 중진국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국제경제질서의 재편에 관하여 연구하고 있다. 본 프로그램은 세계무역질서에 대하여 경제학과 법학 분야의 연구를 종합하는 학제적, 융합적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기존의 경제이론과 계량분석 및 법학 연구를 융합하여 아시아를 중심으로 진행될 국제경제질서의 재편에 대해 연구함으로써, 이러한 변화에 따른 위험 증가에 적절히 대응하고 지속 발전을 가능하게 할 새로운 글로벌 경제질서의 모델을 모색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국제 경제질서 재편의 중심적 주제 중 하나는 혁신·창조 활동의 아시아로의 이동에 따른 선진국과 신흥국들의 이해관계 충돌과 조정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프로그램은 아시아연구소가 기획과제의 주제로 제시한 '이동과 흐름에서 본 아시아(Transnational Asia)'라는 관점에서 아시아의 혁신·창조활동을 분석하고, 이를 근거로 세계경제질서의 변화 방향에 대한 새로운 개념화를 통해 연구 패러다임의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동남아의 수상 시장

주요 성과

CAGEO의 2015년도 주요 연구 중점은 혁신·창조활동에 관한 경제학적 기초연구와 이를 바탕으로 하는 아시아 연구와의 연계 강화에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한 해 동안 얻은 학술연구 성과 중에 대표적인 것이 '혁신, 창조활동의 아시아로의 이동에 따른 세계 질서의 변화 방향'에 관한 연구이다. 지난 11월 공동저서 초고를 완성하고, 현재 출판을 위한 수정 및 보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과제는 아시아연구소 기획과제로 2014년부터 공동연구원 전원이 참여하여 아시아 지역의 혁신과 지적재산권에 관한 실증분석, 이론연구 및 법제 연구를 각자 수행하고 잠정 결론들을 함께 발표 및 토론하며 학제적 연구를 진행한 결과, 아시아 지역의 혁신활동과 관련하여 의미 있는 연구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 이 연구주제와 관련하여 창조활동에 관한 데이터 구축 및 지수 개발을 위한 학술 및 정책연구를 동시에 진행하였고, 2015년에는 기술진보 관점에서 특허인용 지수를 분석한 연구 결과가 SSCI급 공동연구 논문으로 게재될 수 있었다. 또한, 하반기에는 국책연구소 용역과제로 산업별 특허·혁신지수 개발에 관한 기초 연구를 수행하여 의미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한편, 공동연구원과 보조연구원이 함께 국제통상 제도와 아시아 국가에 관한 여러 학술 연구 성과를 거두었다. 무역에 대한 표준장벽을 규율하는 국제통상제도와 분쟁사례를 연구하는 정책과제를 수행하고, 한국 FTA

한때 '아시아 최고 물류 허브'로 명성을 떨쳤던 홍콩항

규범을 비교 연구하여 논문으로 투고하는 등 통상질서와 아시아 국가 및 개도국 문제에 관한 연구 범위를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다. 중국의 통상분쟁에 관한 연구의 일환으로 대중국 상계조치를 분석, 중국 보조금 정책이 갖는 구조적 문제와 통상법적 쟁점을 연구하여 게재하기도 하였다. 또한, 세이프가드제도 운용에 있어 선진국과 개도국의 사용 패턴 차이를 통상 제도적, 경제학적, 실증분석 관점에서 접근하여 연구한 논문을 수정, 보완 중이다.

향후 과제 및 비전

CAGEO는 국제무역체제에 관한 이론적, 법제적, 실증적 분석을 융합한 연구모델을 모색해왔다. 세계통상체제에서 지적재산권 보호규범이 도입되고 적용되는 과정과 현 시점에서의 쟁점 등을 분석하였으며, FTA를 통해 확대 및 향상되어 가는 아시아 국가들의 지적재산권 보호체계를 검토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향후 제도적 개선을 위한 쟁점과 방안 등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며, 아시아 지역에서의 국제통상질서 재편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연구주제를 발굴하고 아시아적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한 학제적 연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연구 성과 목록

안덕근(2016). 〈The Legal and Economic Analysis of the WTO/FTA System〉. World Scientific

안덕근·김민정(2015). 대중국 상계조치상의 보조금 분석과 통상법 쟁점 연구. 통상법률 통권 123호

김민정 외(2015). 한국 FTA의 TBT 규범 비교분석을 통한 법적 쟁점 연구. 국제지역연구 24권 4호

이지홍 외(2015). Complexity and repeated implementation. Journal of Economic Theory

Seminar on Asia and Global Economic Order(2015.10.13)

사람들

디렉터: 박지형(경제학부)

공동연구원: 안덕근(국제대학원), 이석배(경제학부), 이지홍(경제학부)

전임연구원: 김민정(아시아연구소), 라미령(아시아연구소)

급속한 경제성장이 진행 중인 동아시아 지역은 해결해야 할 문제도 많다. 그 중의 하나가 아시아가 경험하고 있는 각종 환경문제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의 급증이다. 아시아연구소와 조선일보가 2015년 10월에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 30년 동안 전 세계 자연재해 피해액은 7배 증가한 반면 동아시아 지역에서 재난·재해로 인한 물적·인적 피해액은 86.8배나 증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 간의 경제발전상태와 정치체제, 그리고 역사적인 이질성이 높아 환경에 대해 동일한 인식을 공유하지 못하고 있다.

환경협력 프로그램

동아시아 환경문제와 해결방안에 대한 인식 전환 추구

연구 주제

UN 등 많은 국제기구에서는 환경과 공존하려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아시아대륙의 지속가능한 발전이 어려울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환경협력프로그램에서는 3가지의 연구주제를 제시하여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첫째는 인간과 자연과의 상호작용을 복잡계(complexity system)적 시각에서 모의하고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다행위자시스템(multi-agent system)을 구축하는 것이다. 둘째는 동아시아 국가들이 공유하는 전통지식 및 경험과학 체계로 풍수를 재해석하고, '아시아 공통가치로서의 풍수'를 통해 동아시아에서 새로운 환경인식을 정립해나가는 것이다. 셋째는 이러한 복잡계 및 사회생태시스템적 시각을 정립하기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그 결과를 대중화하기 위한 노력이다.

환경협력 프로그램 풍수답사

주요 성과

환경협력프로그램에서는 지난 3년간 복잡계 시스템적 시각에서 인간이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모의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토지이용의사결정시스템인 LUDAS(Land Use DynAmic Simulator)를 구축해왔으며, 다양한 국가 및 환경에서 그 적용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다. 구축된 모델은 강원도 평창의 에코시스템 서비스(ecosystem service)의 변화, 몽골의 사막화, 라오스의 수자원 문제, 그리고 북한의 토지 황폐화와 빈곤의 문제 등을 대상으로 활용되고 있다.
2015년의 중요한 성과는 임업진흥원 지원으로 북한의 환경에 대한 자료구축을 완료하였으며, 국립산림과학원 지원으로 토지이용의사결정시스템의 효율화 연구가 수행되었다.

'아시아 공통가치로서의 풍수'에 대한 연구의 가장 중요한 성과는 동아시아풍수문화연구회의 설립을 통해 풍수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연구자들의 조직을 완성하였다는 것이다. 2015년 2월 중국 운남성에서 '풍수의 현대적 재해석'에 대한 국제세미나를 개최하였으며, 2016년 2월에는 일본 오키나와에서 제3회 동아시아풍수워크숍을 운영하였다. 국내적으로도 2회의 현장 워크숍, 1회의 학술대회를 통해 2권의 연구서가 출판되었거나, 2016년 상반기 출판을 앞두고 있다.

연구 결과의 대중화를 위해 환경재단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2015년 상반기에 아시아의 환경운동가들을 초청하여 아시아의 주요환경 이슈와 방향성을 논의하는 그린아시아토크(Green Asia Talk)를, 하반기에 청년들의 새로운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그린잡토크콘서트(Green Job Talk Concert)를 개최하였다. 또한, 전문가들과의 연구네트워크 구축을 위해서는 연구재단의 지원을 통해 '사회-생태시스템(socio-ecological system)' 연구 세미나를 2회에 걸쳐 진행하였다.

경북 안동 퇴계태실 뒷편 마당

향후 과제 및 비전

국제적으로 환경을 바라보는 시각은 최근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환경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세분하고 분석하여 일반법칙을 만들려고 노력한 논리 실증적인 접근법은 많은 한계에 부딪히면서 지역이 가진 특수성과 역사성을 고려하지 못하면 더는 일반법칙이 되기 어렵다는 것이 확실해졌다.

이러한 맥락에서 복잡계적인 접근법이 대두되면서, 문제 해결을 위한 진정한 지식체계는 오랜 역사를 가진 그 지역의 전통지식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각종 UN 환경 관련 기관들은 각 국가 및 지역의 전통지식을 정책영역에 끌어들이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중국에서는 풍수를 중국 고유의 문화자산으로 UNESCO에 등재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일본 역시 풍수적인 시각이 다분한 '사토야마(里山)' 원리를 국제화하는데 국가가 나서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반면 한국에서 이루어지는 풍수에 대한 관심은 아직도 연구자 개인적인 차원의 노력에 머물고 있다. 특히 풍수가 전통사회에 미친 폐해로 인해 전문가들의 풍수와 같은 전통지식에 대한 편견이 유독 심하다. 하지만 많은 경우 서양 학문에 대한 맹신이 그 바탕을 이루며, 그들 대부분이 현재 국제적으로 논의되는 담론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 더더욱 아쉽다. 풍수가 비과학적인 주술로 남아있을지, 아니면 현대과학을 보완하는 새로운 지식체계로 거듭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우리 세대가 고민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연구 성과 목록

동아시아풍수문화연구회·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편(2016). 〈동아시아 풍수의 미래를 읽다〉 동아시아풍수문화연구 총서 1권. 지오북

이도원(2016). 〈실크로드의 생태와 사람들〉. 지오북

사람들

디렉터: 박수진(지리학과)

공동연구원: 이도원(환경대학원), 최원석(경상대)

서울대 아시아연구소는 2010년 '동아시아 경제 협력과 통합'이라는 주제로 대학 내 연구소를 지원함으로써 연구 거점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한국연구재단의 중점연구소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현재 3단계 9년(단계별 3년)의 연구기간 중 2단계 3차년도(6년 차) 연구를 진행 중이다. 동아시아 경제사회 공동체의 협력과 통합연구단은 동아시아의 경제와 사회의 협력 현황을 분석하고, 통합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다. 동아시아의 다양한 영역을 아우르는 통합적 연구 거점을 목표로, 주제에 특화되고 전문화된 연구진들이 다양한 학술연구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중점연구소
〈동아시아 경제사회 공동체의 협력과 통합〉

동아시아 공동체 형성의 현황과 가능성, 건설 방안 모색

연구 주제

연구기간 1단계에서는 연구책임자 임현진(아시아연구소 초대소장) 교수를 포함한 서울대 사회대 교수 8명과 전임연구인력 4명이 동아시아의 경제협력과 통합 연구분야에서 아시아적 특수성에 기초한 새로운 이론체계 및 방법론을 제시하고, 경제공동체 건설 및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정책방안을 마련하는 등 다양한 연구활동에 매진하였다.

2013년 9월부터는 현 아시아연구소장인 강명구 교수가 연구책임자로, 7명의 공동연구원과 4명의 전임연구인력이 2단계 연구를 진행 중이다. 이번 단계에서는 1단계에서 진행한 동아시아 경제공동체의 지속가능한 성장 가능성 및 건설 방안에 대한 논의를 확대하여 폭넓게 동아시아 국가 간 협력 및 공동체 형성 가능성을 모색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동아시아의 경제공동체에 초점을 맞추는 제 1 세부과제팀과 사회, 문화 등의 측면에서 동아시아 공동체의 가능성과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제2 세부과제팀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토야마 유키오 전 일본총리 특별강연(2015.11.5)

주요 성과

〈동아시아 경제사회 공동체의 협력과 통합연구단〉은 2단계 3차년도 연구기간인 현재까지 동아시아의 경제와 사회를 아우르는 연구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제 1 세부과제팀은 실물적 측면의 동아시아 경제통합의 진전 정도와 경제공동체의 지속적인 성장 가능성을 위협하는 요인들에 대하여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제 2 세부과제팀은 대중문화, 사회통합, 환경협력 등의 다양한 측면에서 동아시아 내부의 사회·문화의 협력 및 통합의 다양한 양상을 연구하고 있다.

2016년 2월 현재 이러한 두 가지 세부과제는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경제와 사회를 아우르는 동아시아 공동체 논의로 발전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2단계 연구 기간 동안 세부과제 상호연계성의 증진을 위하여 제 1 세부과제팀과 제 2 세부과제팀이 함께 참여하는 '초국경 아시아' 연구와 '동아시아 기업의 중국진출 연구'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2015년부터 심도 있게 진행되고 있는 '동아시아 기업의 중국진출 연구'는 동아시아의 인적·물적 이동과 흐름이 동아시아 지역 기업들에 의해 상당 부문 주도되고 있으며, 이들이 동아시아의 사회문화적인 공통적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점에 착안하였다. 이에 기업을 아시아 지역에서 진행되는 교류와 협력의 실질적 주체이자 국가를 넘어서는 새로운 행위자로 상정하고, 이들이 국경의 틀을 넘어 진행시키고 있는 다양한 교류와 협력의 양상과 변화를 연구하고 있다.

중국 제일의 경제 도시 상해

향후 과제 및 비전

중점연구소는 동아시아의 다양한 영역을 아우르는 통합적 연구의 장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다. 특히 동아시아 각 국가 내에 집중된 연구들을 국가 간, 지역 내부의 문제로 확장하여 활발한 연구를 진행되었다. 먼저, 제 1 세부과제팀은 동아시아 각국의 거시경제 지표와 사회적 지표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검토하고, 탈북자의 사회경제과정 동화연구를 위한 패널을 구축하였다. 또한, 중국과 미국의 환율 충격 효과 비교 및 한국재정학의 연구동향과 연구과제 검토를 통하여 동아시아 경제공동체의 현황 및 가능성을 모색하였다.

다음으로, 제 2 세부과제 동아시아 사회문화공동체의 협력과 통합 팀은 환경변화에 따른 동아시아 발전국가의 정치경제모델 및 복지체제에 대한 비교연구, 소련군 기념비 연구등을 통하여 역사속 동아시아 각국의 국가 간 우호와 협력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리고 문화적 측면에서 대중문화 및 동아시아 지역의 교육에 대한 분석을 통해 동아시아 지역의 특성을 파악하였다. 또한, 동아시아 환경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아시아 공동가치를 추출하고, 동아시아 지역의 환경가치 평가와 국제협력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었다.

마지막으로, '동아시아 기업의 중국진출' 연구는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지역적 분포, 조직적 특성, 기업진출 및 유치와 관련된 중국과 한국의 정책과 그 영향 등에 대한 탐색적 연구가 진행되었다. 향후 일본 연구자들과 협력하여 한국과 일본기업의 중국진출에 대한 비교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며, 이를 위하여 일본의 규슈대학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세미나 개최를 협의 중이다.

연구 성과 목록

강명구·신혜선 외(2015). 한국과 중국 시청자의 드라마 취향 프로파일 비교. **한중인문학연구 제49집**

김성규(2015). 개발협력과 기업의 글로벌 사회적 책임(Globa CSR) – 가나 자동차 기술교육센터 ODA 사업 사례를 중심으로. **국제지역연구 제19권 3호**

박수진(2015). 한국의 산사태 취약지역과 사방지의 환경요인 분석. **국토지리학회지 제49권 2호**

신혜선(2015). 세계화와 중산층 열망의 교차점, 재중 한국국제학교 – 대련한국국제학교를 중심으로. **중소연구 제39권 2호**

정근식(2015). 냉전과 소련군기념비 – 중국과 북한에서의 형성, 변화, 영향. **아시아리뷰 제5권 1호**

조수현·임혜란(2015). 미국의 TPP 참가와 타결을 둘러싼 제도적 동학. **EU학 연구 제20권 2호**

최종호(2015). 의료정책 변화 과정에서의 이익집단과 제도의 역할 분석: 영국과 미국의 비교. **민족연구 63호**

Chi Gong, Zi-Yang Liu(2015). The effects of the RMB's appreciation on trade balance in US. **한국컴퓨터정보학회 논문지 제20권 11호**

사람들

연구책임자: 강명구(언론정보학과, 아시아연구소 소장)

공동연구원: 김병연(경제학부), 김소영(경제학부), 김재영(경제학부), 박수진(지리학과), 이철인(경제학부), 임혜란(정치외교학부), 정근식(사회학과)

전임연구원: 김성규(아시아연구소), 김유미(아시아연구소), 신혜선(아시아연구소), 최종호(아시아연구소)

동아시아 도시연구단은 '냉전적 발전주의 도시화'라는 틀에서 동아시아 도시를 설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도시연구의 새로운 인식론' 개발을 목표로 한다. 현재 동아시아 도시들이 처한 위기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 첫째, 1950년대 이후 냉전의 지정-지경학적 상황과 1950~80년대 동아시아 각국에서 팽배했던 발전주의적 국가개발이 동아시아 도시화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고, 둘째로 1990년대 이후 탈냉전 지정-지경학적 조건 속에서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어떻게 발전주의 도시화의 유산과 더불어 동아시아의 도시화 과정을 변화시켰는지 분석한다.

제 1회 도시정책포럼(2015.12.23)

SSK 동아시아 도시연구단

공존과 지속가능성을 위한 동아시아 도시성의 모색

연구 주제

냉전적 발전주의 도시화를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압축성, 예외성, 위험성이라는 세 가지 요소를 바탕으로 동아시아 도시화의 특성을 정의하고, 각 요소에 대한 동아시아 각국, 특히 한국, 일본, 대만, 중국의 도시화 특성을 설명하고자 한다.

먼저 압축성은 급속한 산업화가 필연적으로 요구했던 시공간 압축을 뜻하는 것으로, 동아시아 도시화의 대표 속성이다. 동아시아 도시연구단에서는 각국이 꾀했던 '메가 도시 프로젝트'에서 압축의 방식과 그 효과를 분석하고 있다. 둘째, 예외성은 동아시아 각국이 영토 내에 구축한 '예외적 공간'의 존재로 정의된다. 특히 '특구'는 동아시아적 현상이라 할 만큼 각국에 확산되어 있어 비교연구가 가능하다. 규칙, 규범, 혜택의 차별화가 명징하기 때문에, 예외성의 동학이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마지막으로 위험성은 압축적 도시화의 과정과 결합되어 나타나는 위험경관의 출현에 주목하고, 특히 '핵 발전 위험경관'의 형성과정을 분석하는데 초점을 둔다.

주요 성과

연구단은 동아시아의 발전주의적 도시화를 보다 실증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동아시아 도시에 대한 현지 조사와 도시 전문가 및 주민, 사회단체에 대한 심층적 인터뷰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한국의 발전주의 도시화를 '강남 만들기'와 '강남 따라하기'라는 틀로 바라보면서, 한국 도시 중산층이 도시를 재현하는 방식을 생애사 인터뷰를 통해 파악하고 있다. 이러한 실증적 연구 외에도 각 연구주제별로 학술 콜로키엄을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다양한 학자와 전문가들과 동아시아의 압축적 도시화, 예외적 공간의 형성, 위험경관의 등장에 대하여 논의하고, 향후 공동 연구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소형단계부터 형성된 국제적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캐나다의 British Columbia 대학에서 개최된 Peter Wall Institute International Research Roundtable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동아시아의 발전과 민주주의의 지정-지경학 워크숍'을 진행했다. 미국지리학회(AAG) 동아시아 도시화 세션에서는 '자산 중심 도시화'와 '욕망의 제도화'에 관해 논의하고, 여러 국제적 도시전문가들과 동아시아 도시를 이해하기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여 향후 연구 주제로 확대하기로 하였다.

가을과 겨울에는 국제적 공동연구를 활발히 진행하였는데, 연구단에 공동연구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대만국립대 진유 수(Jinn-yuh Hsu) 교수와 런던 정경대(LSE) 신현방 교수가 아사아연구소에 방문연구원으로 체재하면서, 중국, 대만, 한국의 도시화를 비교 연구하였다. 특히, 10월에는 위의 두 교수 외에 일본 요코하마 국립대의 아사토 사이토(Asato Saito) 교수를 초청하여, '동아시아 발전주의적 도시화의 맥락에서 본 젠트리피케이션'이라는 주제로 미니 콘퍼런스를 개최하였다.

학문 후속세대에 대한 교육과 세미나 활동도 활발하게 진행하였다. 1월에는 'Mobile Urbanism' 세미나를 개최하여 도시적 지식과 담론의 글로벌한 확산이 도시정책의 초국가적 이전과 글로벌한 도시정책 네트워크 형성에 미친 영향에 대하여 학습하였다. 12월에는 '젠트리피케이션: 발전주의 도시의 위기 분석과 대안적 전망'을 주제로 Winter School을 개최하여, 총 4회에 걸쳐 젠트리피케이션의 이론과 대안에 대해 논하였다.

연구단의 학문적 연구를 실제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기여하는 실천적 활동으로 연결하기 위해, 서울연구원, 충남연구원, SH 공사, 한국공간환경학회, 한국도시연구소, 토지+자유연구소 등과 같은 여러 기관 및 단체와 공동으로 '도시정책포럼'을 구성했다. 12월에는 '젠트리피케이션 없는 도시재생은 가능한가?'라는 주제로 제1회 도시정책포럼을 개최하여, 언론의 주목과 대중의 관심을 이끌어 내기도 하였다.

향후 과제 및 비전

동아시아 도시연구단은 동아시아 도시연구의 중심인 'SSK 동아시아 도시연구센터'의 설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도시연구센터는 동아시아의 경험에 기반한 새로운 도시이론을 모색하고, 이를 경험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심층인터뷰, 설문조사, GIS(지리정보시스템), 빅 데이터 등을 활용한 실증적인 조사역량을 갖춘 명실상부한 '동아시아 도시연구의 허브'로 자리매김하고자 한다. 더불어 이러한 학술적 연구를 바탕으로 정부, 기업, 시민사회와 함께 동아시아 도시문제에 대해 실질적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대안적 싱크탱크로 자리 잡기 위한 노력을 병행할 것이다.

연구 성과 목록

조성찬(2015). 〈상생도시: 토지가치 공유와 도시 재생〉. 알트

Shin, H.B. (forthcoming). 〈Envisioned by the state: Entrepreneurial Urbanism and the Making of Songdo City, South Korea.〉 In: Datta, A. and Shaban, A. (Eds.) Mega-urbanization in the global South: Fast cities and new urban utopias of the postcolonial state. Routledge

Shin, H.B. (2016). 〈China meets Korea: the Asian Games, entrepreneurial local states and debt-driven development〉 In: Gruneau, R. and Horne, J. (eds.) Mega events and globalization: Capital and spectacle in a changing world order. Abingdon, Oxon; New York: Routledge

Lees, Loretta, Shin, Hyun Bang and López-Morales, Ernesto, eds. (2015). 〈Global gentrifications: uneven development and displacement〉. Policy Press, Bristol, UK

Jintae Hwang (2015). A study of state-nature relations in a developmental state: the water resource policy of the Park Jung-Hee regime, 1961-79. Environment and Planning A Vol. 47 No. 9

Hyun Bang Shin (2015). Economic transition and speculative urbanisation in China: Gentrification versus dispossession. Urban Studies

Hyun Bang Shin and Soo-Hyun Kim (2015). The developmental state, speculative urbanisation and the politics of displacement in gentrifying Seoul. Urban Studies

김동완(2015). 19세기 말 개화 지식인의 도시 인식과 실천론: '치도론(治道論)'의 통치 합리성과 근대 인식. 공간과 사회 제25호 2호

김은혜(2015). 전후 일본 발전국가의 구조전환: 토건국가에서 신자유주의까지. 일본학보 제105호

김은혜(2015).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위험경관의 공간정치: 귀환에 직면한 이타테무라의 딜레마. 지역사회학 제16호 3호

박배균·김민환(2015). 단절과 이동의 변증법과 금문 지역경제의 변화 -고량주 경제를 중심으로-. 문화역사지리 제27호 2호

이상헌(2015), 사회적 경제를 통한 국제 개발 협력의 진화; 필리핀 타워빌(Towerville) 지역 사례를 중심으로. 민주사회와 정책연구 제29호

이상헌(2015). 닐 스미스(Neil Smith)의 자연의 생산 개념에 의한 청계천 복원 사업의 비판적 해석. 공간과 사회 제54호

조성찬(2015). 북한의 관광산업에 기초한 "토지사용료 순환형 경제발전 모델" 연구. 북한연구학회보 제19호 1호

이승욱(2015). 닐 스미스의 지리정치경제학, 제국, 그리고 신자유주의. 공간과 사회 제54호

황진태·권규상·조영지(2015). 노점상 연구에서 도시 비공식성 개념의 이론적·실천적 함의. 공간과 사회 제53호

사람들

디렉터: 박배균 교수(지리교육과)

공동연구원: 김동완(경남대), 김은혜(아시아연구소), 신현방(런던정경대), 아사토 사이토(요코하마국립대), 이상헌(한신대), 이승욱(카이스트) 장세훈(동아대), 조성찬(토지+자유연구소), 지주형(경남대), 진유 수(대만국립대), 짐 글래스만(브리티시컬럼비아대) 해람(요크대), 황진태(아시아연구소)

압축도시 한국의 강남화

아시아연구소 중점 추진사업

아시아연구소는 지역 센터 및 주제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국제학술회의 및 지역 관련 학술행사를 통해 상호 연구의 장을 넓히는 데 주력하고 있다. 또한, 다양한 학술연구 활동과 국내외 개인 연구자들 및 기관들과의 연구협력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 아시아 연구의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형성을 위한 진일보를 이뤄나가고 있다.

2015년도에는 한국사회과학자료원(KOSSADA)이 아시아연구소로 이관되어 아시아 데이터 아카이빙의 허브로 도약하기 위한 출범을 알렸다. KOSSDA의 축적된 데이터와 아시아연구소의 결합이 구현해 낼 시너지 효과를 기대한다.

학술연구의 다양화 및 전문화

아시아연구소의 학술연구 활동은 지역과 주제의 수평적 결합은 물론 풀뿌리 지방에서부터 국가, 아시아, 그리고 세계의 영역이 위아래로 연결되는 수직적 결합을 모색하는 다양한 이슈, 쟁점, 그리고 정책대안을 논의하는 장이 되었다.

아시아연구소의 학술연구 활동은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최근 부상하고 있는 아시아 연구 주요 주제인 '아시아 자본주의'에 대한 국제적인 논의의 장을 마련했다. 2014년 가을부터 1년여 준비 기간을 거쳐 2015년 10월 22~23일에 한국사회과학협의회와 공동으로 아시아자본주의 국제학술회의 'Capitalism and Capitalisms in Asia: Origin, Commonality, and Diversity'를 개최하였다. 아시아자본주의 관련 해외 전문 연구자(미국, 유럽, 그리고 남미) 14명과 국내 전문가 7명이 참여하여 동아시아 근대화 맥락에서의 아시아자본주의, 중국자본주의 발전 특성, 그리고 아시아자본주의 다양성의 면면을 심도 있게 논의하였다. 향후 아시아자본주의 관련 국제 공동연구 및 학술회의가 시리즈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둘째, 그동안 소홀히 다루어진 서아시아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자 서아시아 지역 관련 학술행사를 시리즈로 기획하였다. 명지대 중도문제연구소와는 '서아시아 사회의 안과 밖'이라는 주제로 이슬람 사회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연속강좌 시리즈-터키의 시리아 정책과 ISIS 문제, 아랍의 봄 이후 중동 정세 등-를 개최하였다. 또한, 이스탄불문화원과는 '한국과 터키의 민주주의와 언론의 역할'을 주제로 한국-터키 상호이해 연속세미나를 두 번째 순서로 개최하였다. 하반기에는 터키 문화주간을 기획하였으나 터키 앙카라 폭탄 테러로 인해 아쉽게 연기되었다.

셋째, 아시아연구소는 2015년 주요 기획사업으로 광복 70년을 맞이하여 일본 하토야마 전 일본총리를 강연자로 초청하여 '한-일수교 50년에 한일관계를 다시 바라 본다'라는 주제로 특별강연회를 개최하였다. 더불어 '아시아 가족 연구'로서 한·중·일 3국을 대상으로 가족 범위와 인식에 관한 조사를 통해 유교문화권으로 통칭되는 동아시아 맥락 속에서도 가족 범위와 가치 인식에 큰 차이가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향후 미국, 스웨덴, 이탈리아 등의 국가로 조사범위를 확대하여 아시아 가족의 고유성이 존재하는지에 대한 연구를 수행할 것이다.

넷째, 아시아연구의 기반구축 사업으로 3년째 진행되고 있는 지역센터-동북아시아,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와 주제연구프로그램-대중문화, 미중관계, 민주주의와 경제발전, 시민사회, 아시아글로벌 경제질서, 아시아센서스, 환경협력, SSK 동아시아 도시-은 연구 주제의 전문성, 연구네트워크의 확장, 그리고 연구결과의 공유를 위해 다양한 형태의 학술행사를 주관하였다. 특별히 분기별로 갖는 아시아연구소의 아시아연구 연합학술회의에서는 센터와 프로그램에서 진행하는 연구를 소개하며 상호 연구 협력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장이 되었다.

이처럼 2015년 한 해는 아시아연구소의 연구 구심점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 센터 및 주제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국내외적으로 다양한 논의와 상호 연구를 통해 아시아연구의 다양성과 전문성을 동시에 꾀하고자 하였다. 지역과 주제를 수평 및 수직적으로 연결하고자 하는 아시아연구소의 노력이 모태가 되어 2016년에도 더욱 다양하고 심도 있는 아시아연구의 장이 확장되기를 기대한다.

아시아자본주의 국제학술회의 현장

아시아 자료 아카이브로의 확장

한국사회과학자료원은 사회과학 분야 한국 연구 자료와 문헌의 통합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는 학술정보 서비스 기관이다. 2006년 이인표재단의 지원으로 설립된 KOSSDA는 교육 및 연구와의 결합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고, 아시아 데이터 아카이브의 허브로 발전하기 위해 2015년 6월 이인표재단과 서울대학교 간의 협약을 통해 아시아연구소로 이관되었다.

KOSSDA는 서울대 아시아연구소에서의 재출범을 알리고자 지난 1월 22일 '사회과학 연구자료의 수집, 아카이빙, 확산 경험'을 주제로 하는 학술세미나와 함께 이관 개원식을 개최하였다. 학술세미나는 KOSSDA에 자료를 기탁하는 자료공유협약기관 대표자들이 참석하여 한국의 자료생산 규범과 자료공유 문화를 짚어보고 그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개원식에서는 성낙인 서울대 총장이 KOSSDA의 새 출발을 알리는 동시에 '현대판 규장각'으로의 발전적 출범을 선언하였다.

사회과학 자료는 한국 사회의 변화에 대한 풍부한 정보를 담고 있다. 그래서 증거에 기반을 둔 과학적인 정책 개발에 핵심적 역할을 할 뿐 아니라 한국 사회과학의 발전을 위한 소중한 공공재의 역할을 한다. 미국 대학들이 세계 사회과학을 선도하는 이유 중 하나도 방대한 경험적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관리해왔기 때문이다. 조선왕조가 규장각을 통해 학문적 부흥을 꾀하였듯이, KOSSDA도 서울대의 자원과 역량을 기반으로 사회과학 연구자료의 축적과 보급을 선도함으로써 지식정보강국 진입과 사회과학 발전을 위한 공공 인프라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다. KOSSDA는 아시아 비교연구의 창(窓)으로서 아시아 자료센터의 허브 역할도 담당할 것이다. 이를 위해 일본 동경대, 중국 인민대, 대만 중앙연구소의 자료센터들과 협력체를 구축하고, 아시아 자료 아카이브의 허브 설립을 목표로 협력을 단계적으로 넓혀 갈 계획이다. KOSSDA는 아시아 데이터 아카이브 협력체 구성을 위해 일본, 중국, 대만 3개국 아카이브 책임자들이 참여하는 회의를 지난 1월 30일과 31일 양일간 아시아연구소에서 개최하였다.

KOSSDA는 아시아 데이터 아카이브 통합에 대비하여 소장자료의 영문화 사업을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내 학생과 연구자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방법론 교육 프로그램을 아시아 전역으로 확장함으로써 아시아 방법론 교육의 선도 기관으로 발돋움할 계획이다.

글로벌 네트워크의 겹침과 펼침

국내외를 아우르는 연구협력 네트워크의 활성화는 내실 있는 연구프로그램의 확대와 함께 아시아연구소가 역점을 두고 있는 부분이다. 2015년 아시아연구소의 연구사업이 한국연구에서 출발하여 확장된 연구로서의 아시아연구에 중점을 두었다면, 연구협력 네트워크의 활성화는 다양한 국내외 아시아연구의 흐름을 아시아연구소의 연구사업과 연결지으며 공동연구 활성화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2015년 아시아연구소의 연구협력 네트워크 확장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이루어졌다.

연구교류 네트워크 확대는 아시아연구소가 아시아연구 국제 네트워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에서 확인되었다. 호주 애덜레이드에서 개최된 ICAS(International Convention of Asian Scholar)의 아홉 번째 국제회의에서 아시아연구소는 ICAS International Council에 참여하여 세계적 차원의 아시아연구 방향과 진로설정에 관한 아시아연구소의 의견을 제출하며 대규모 국제연구 네트워크의 주요 기관으로 참여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또한, ICAS의 아시아연구 국제 네트워크 확장 프로그램의 하나로 진행된 아프리카 가나에서의 Asian Studies in Africa에 패널을 조직하여 참여하였고, 남미에서의 아시아연구 활성화를 위한 논의를 포함하여 세계적 차원에서의 아시아연구 활성화를 위한 기획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외에도 아시아연구소는 ICAS의 뉴스레터에 동북아시아의 주요 이슈를 정기적으로 소개하고, 아시아연구 우수도서를 선정하는 과정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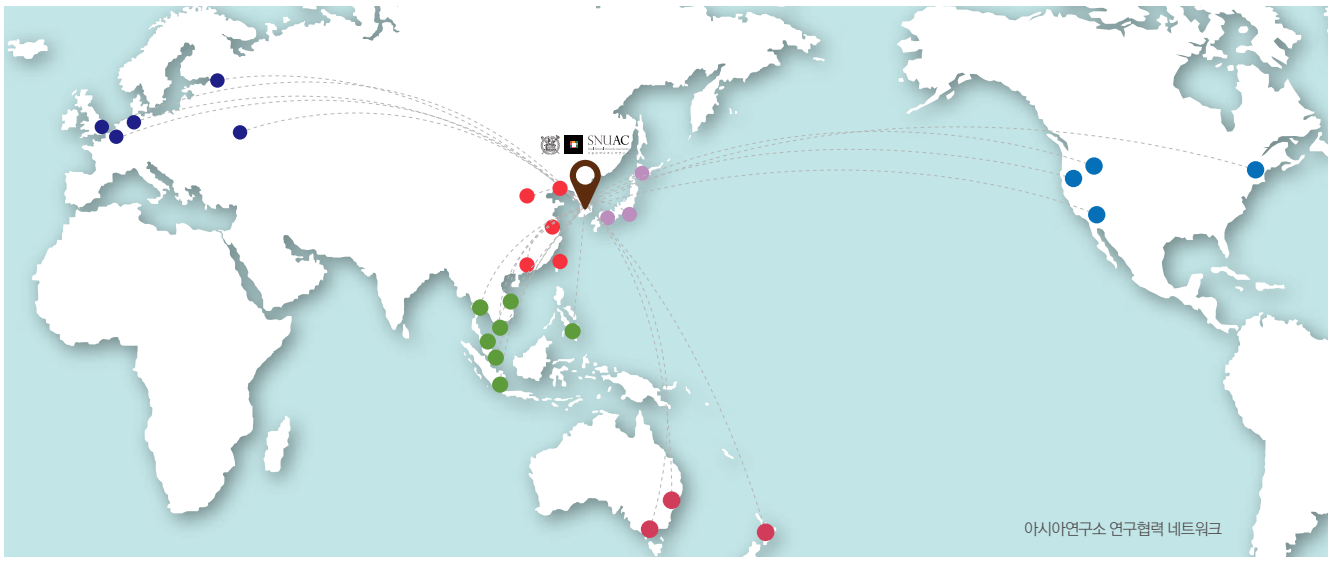
아시아연구소는 2015년 한 해를 통해 2016년 서울에서 개최 예정인 InterAsian Connections V회의의 주관기관으로서, 미국 SSRC(Social Science Research Council)를 포함한 세계 주요 아시아연구기관들과의 협력을 지속하며, 200여 명에 이르는 전 세계 아시아 전문 연구자들과의 교류를 통한 새로운 연구협력 네트워크의 확장이 이루어질 것을 준비하였다.

교육부문에서는 지난 5년간 아시아와 유럽의 8개국 13개 대학을 대상으로 48개의 국제강의를 개설하며 진행된 Global e-School Program이 연구소의 국제교류 및 국제공동 연구프로그램과 연결되며 아시아연구소의 대표적인 국제교류 프로그램으로 발전하였다.

다른 한편으로 아시아연구소는 2015년부터 국내 다양한 아시아전문 연구기관들과 함께 아시아 관련 교육사업을 전개하며, 국내 아시아연구 전문기관으로서의 자리를 찾아가고 있다. 이는 국내 다양한 기관들의 해외 아시아 전문가 초청 프로그램에서 아시아연구소 방문이 정례화되고 있는 것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아시아연구소의 3개 지역센터와 다양한 주제연구프로그램 역시 연구사업 진전과 함께 사업 단위별 연구협력 네트워크를 확대해가고 있다. 다양한 영역에서 학술회의 및 연구사업을 함께 진행하며 형성되는 연구협력 네트워크는 연구소 미래 발전의 자산이 된다. 더 나아가 아시아연구소가 위치한 서울대 내부 연구자 및 연구기관들과의 협력 증대 역시 연구교류 네트워크 확장의 주요한 부분이 되고 있다.

아시아연구소의 연구협력 네트워크 확장은 연구자들 간에 시작된 교류가 연구자가 소속되고 관련된 기관들과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협력 네트워크로 발전하면서 가능해진다. 아시아연구소는 일회적이고 단편적일 수 있는 국내외 교류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협력 네트워크로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갈 것이다.



학술행사

아시아연구소는 아시아를 둘러싼 다양한 이슈에 대한 풍성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 있다. 특별강연, 워크숍, 콜로키엄, 국내외 학술대회 등 다양한 학술활동을 통해 우수한 아시아 연구 성과를 공유할 뿐 아니라, 연구 네트워크 구축에도 힘쓰고 있다.

* 학술행사 인명 표기는 직함을 제외한 성명, 소속을 기재.
  서울대학교 교수는 학과명을 표기하고, 아시아연구소 소속 연구원은 아시아연구소로 표기.

KOSSREC
Capitalism and Capitalisms in Asia:
Origin, Commonality, and Diversity
October 22 - 23, 2015

학술행사 일람

3/12
아시아연구소
〈브라운백세미나〉 (1) How Institutions Interact with Ownership in Determining Firm Performance in China
이현태(경제학부)

3/17
동남아시아센터
〈2015년 석학·전문가 초청강연 시리즈〉 (1) 변화하는 세계정치경제와 한-베트남 관계
Nguyen Xuan Thang(Director, Vietnam Academy of Social Science)

3/18
민주주의와 경제발전 프로그램
〈콜로키엄〉 What May the Works of Elinor Ostrom and Vincent Ostrom Tell Us about Cooperative Economics and Self Governance?
Barbara Allen(Carleton College)

3/19
아시아연구소
〈브라운백세미나〉 (2) 일제강점기 조선과 대만총독부 편찬 국어독본에 관한 일고찰
송숙정(중앙대)

3/24
아시아연구소
〈브라운백세미나〉 (3) 탈냉전기 동아시아 담론의 형성과 이행
윤여일(사회학과)

3/25
미-중관계 프로그램
〈미-중관계 세미나〉 (13) China's Views of the U.S.-North Korea Relations
Li Nan(Chinese Academy of Social Sciences)

4/1
아시아연구소
〈브라운백세미나〉 (4) 히키아게샤(引揚者)의 후루사토(故郷)와 전후 일본의 내셔널리즘
차은정(인류학과)

4/1
중앙아시아센터
〈초청강연〉 (3)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러시아 및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대외정책
백주현(전 주카자흐스탄 대사)

4/9
동북아시아센터
〈콜로키엄〉 에너지 혁명이 동북아시아에 미치는 영향
강주명(에너지시스템공학부)

4/12
중앙아시아센터/ 국민대 유라시아연구소/ 한중앙아친선협회/ 한양대 아태지역연구센터
〈2015 Turkmanistan-Korea Seminar〉 "Turkmenistna as a Permanent Neutral State and Korea"
황영삼(한국외대)

4/13
중앙아시아센터
〈초청강연〉 (4) 중앙아시아 이주 고려인들의 교육과 문화 중심지 크즐오르다: 사회적 상황과 고려인 사회
김필영(강남대)

4/15
동남아시아센터
〈2015년 석학·전문가 초청강연 시리즈〉 (2) ASEAN Integration from a Mekong Perspective: Community or Consortium?
Yan Flint(Khon kaen U., Thailand)
김태윤(국제농업기술대학원)

4/17
SSK 동아시아도시연구단
〈콜로키움〉 강남은 어떻게 한국 도시 중산층의 이상향이 되었는가?
김도균(아시아연구소)
임동근(매핑 및 모델링연구소 소장)

4/21
아시아연구소/ 최재천의원실/ 이스탄불 문화원/ 세계지역문화연구소/ 시사IN
터키의 시리아정책과 ISIS 문제
Abdulhamit Bilici(Director, Cihan News Agency)
이희수(한양대)
박현도(명지대)
정필모(KBS해설위원)
이근(국제대학원)
여성준(외교부 아프리카 중동국 심의관)

4/22
아시아연구소/ 이스탄불문화원
〈한국-터키 상호이해 연속세미나〉 (2) 한국과 터키의 민주주의와 언론의 역할
Abdulhamit Bilici(Director, Cihan News Agency)
김성해(대구대)
이준웅(언론정보학과)

4/23
아시아연구소/ 한중일3국협력사무국
〈워크숍〉 2015 한중일 언론인과 학생들의 대화

4/29
중점연구소
〈워크숍〉 역사적 지역 개념으로서의 동북아시아의 제 문제: 초국경적 특성을 중심으로
Oka Hikori(Tohoku U.)

4/29
미-중관계 프로그램
〈미-중관계 세미나〉 (14) 패권국-부상국 간의 인식: 21세기 미-중 관계의 사례
정재호(정치외교학부)

4/30
아시아연구소/ 명지대 중동문제연구소
〈특별강연〉 아랍헌법과 이슬람
김종도(명지대)

5/1
대중문화 프로그램
〈워크숍〉 (2) 동아시아 창의 청년 연구팀 워크숍
소영현(연세대)
고선희(서울예대)

5/6
아시아연구소/ 명지대 중동문제연구소
〈특별강연〉 아람의 봄 이후 중동 정세
안남식(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5/8
아시아연구소
〈국제학술회의〉 Food in Asian Culture: Origin and Acculturation
이시재(성공회대)
Rongguang Zhao(Zhejiang Gongshang U., China)
정해경(호서대)
Jiansheng Huang(Yunnan Minzu U., China)
Toshimitsu Kawai(Sonoda Women's U.)
주영하(한국학중앙연구원)
M. Hsiao & May Yu-Hsin Chang(Academia Sinica, Taiwan)

5/11
아시아연구소/ 환경재단
제4회 그린아시아포럼&국제환경활동가와 함께하는 그린아시아토크
Tuy Sereivathana(Country Director in Cambodia for Fauna & Flora International)
Rudi Putra(Conservation Manager of Aceh Natural Forest and Environment Foundation(HAKA) & Leuser Conservation Forum(FKL))
Dmitry Lisitsyn(Chairman of council of Sakhalin Environment Watch)
Michal Kravcik(Chairman of People And Water)

5/11
민주주의와 경제발전 프로그램/ 한국정치연구소
〈콜로키움〉 (1) 시민정치 흐름과 네트워크 정당모델의 과제
채진원(경희대)

Peter Sluglett(Director, Middle East Institute, National U. of Singapore)

백주현(전 주카자흐스탄 대사)

5/13
아시아연구소
〈콜로키움〉 위기의 중동 사회: 종파주의와 IS
Peter Sluglett(Director, Middle East Institute, National U. of Singapore)
Fanar Haddad(Middle East Institute, National U. of Singapore)

5/13
아시아연구소
〈브라운백세미나〉 (1) Max Planck Institute for the Study of Societies (MPIfG) and the Comparative Capitalism Studies
(2) Immigration Policy of Cosmopolitan Singapore
김도균(아시아연구소)
임시연(아시아연구소)

5/14
동북아시아센터
〈특별강연〉 Kaohsiung Value: Industrial Transformation and Sustainable Development
Chen Chu(Former Mayor of Kaohsiung)

5/19
동남아시아센터
〈2015년 석학 · 전문가 초청강연 시리즈〉 (3) Salafi Networks Between the Arabian Gulf and Southeast Asia
Zoltan Pall(Middle East Institute, National U. of Singapore)

5/20
아시아연구소/ 명지대 중동문제연구소
〈특별강연〉 IS의 형성과 발전
이종택(명지대)

5/20
중점연구소
〈특별강연〉 (1) KFAS 방문학자 초청: 중국 사회의 이해
Li Yang(Communication U. of China)
Liu Zhongbo(Nankai U.)

5/21
중앙아시아센터
〈초청강연〉 (5) "The Buildup and (Potential) Breakdown of Central Asian Regimses"
Scott Radnitz(U. of Washington)

5/22
SSK 동아시아도시연구단
〈콜로키움〉 중국의 도시화와 국가 영토성의 다층성
박철현(국민대)
윤종석(사회학과)

5/27
중점연구소
〈특별강연〉 (2) KFAS 방문학자 초청: 중국 사회의 이해
Gu Zhihui(Nankai U.)
He Hua(Zhongnan U.)

5/27
중점연구소
〈워크숍〉 슈퍼차이나 열풍으로 본 중국사회의 이해
박진범, 김영철(KBS PD)
강명구(아시아연구소 소장)
정영록(국제대학원)
오광진(한국경제신문)
Liu Zhongbo(Nankai U.)
Li Yang(Communication U. of China)

5/27
시민사회 프로그램
〈워크숍〉 (2) 시민사회의 참여형 지역개발 사업의 명암–동남아시아 지역 사례를 중심으로
정법모(아시아연구소)

5/27
아시아연구소/ 명지대 중동문제연구소
〈특별강연〉 IS를 바라보는 아랍 언론의 시각
임병필(명지대)

5/28
아시아–글로벌 경제질서 프로그램(CAGEO)
〈세미나〉 "Seminar on Asia and Global Economic Order" – The Effect of Pre-existing FTAs on the Formation of New FTAs
노재연(경제학부)

5/28
중점연구소
〈워크숍〉 Development of preferences for political and economic institutions : Evidence from North Korean refugees
김병연(경제학부)

5/29
아시아연구소
〈브라운백세미나〉 (1) Life Experiences of People with Disabilities in Vietnam: In Search for the Social Support Models
Van Kham(Hanoi U.)

6/2
아시아연구소
제2회 아시아연구소 연합학술회의: 아시아연구소의 아시아연구
강명구(대중문화 프로그램)
성연주(대중문화 프로그램)
김홍중(대중문화 프로그램)
정재호(미–중관계 프로그램)
박종희(미–중관계 프로그램)
안두환(미–중관계 프로그램)
박배균(SSK 동아시아 도시연구단)
김은혜(SSK 동아시아 도시연구단)
공석기(시민사회 프로그램)
신범식(중앙아시아센터)
고가영(중앙아시아센터)
정법모(동남아시아센터)
김민정(아시아–글로벌 경제질서 프로그램)

6/2
동북아시아센터
〈초청강연〉 Social Change and Music in Modern China
Nailiang Chen(Jiangxi Normal U.)
Jianlin Zou(Jiangxi Normal U.)

6/3
미–중관계 프로그램
〈미–중관계 세미나〉 (15) "빈번해지는 미 · 중 사이의 딜레마: 한국의 해법은?"
박진(아시아미래연구원 이사장)
신정승(국립외교원 중국센터 소장)
윤덕민(국립외교원 원장)

6/3
아시아연구소
〈브라운백세미나〉 (2) Studies on CCTV News
Li Yang(Communication U. of China)

6/4–7/9
동남아시아센터/ 한–아세안센터
〈공동기획강좌〉 동남아 경제 거인들의 어깨에서 아세안 경제 조망하기
박번순(홍익대)
문기봉(한아세안센터 무역투자부)
정법모(아시아연구소)
허남혁(지역재단 먹거리정책 교육센터)
권경덕(KOTRA)
엄은희(아시아연구소)

6/9
아시아연구소/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인문학연구원/ 통일평화연구원
〈국내학술회의〉 광복 70년, 서울대 학문의 성찰: 인문사회계
백종현(인문학연구원 원장)
김인걸(규장각한국학연구원 원장)
박명규(통일평화연구원 원장)
강명구(아시아연구소 소장)

6/9
동남아시아센터
〈2015년 석학·전문가 초청강연 시리즈〉 (4) The Marketing Uniqueness From a Emerging Country – A Case of Indonesia
Bayu Sutikno(U. Gadjah Mada)

6/9
아시아–글로벌 경제질서 프로그램
〈세미나〉 "Seminar on Asia and Global Economic Order" – "International Trends in technological Progress: Stylized Facts from Patent Citations, 1980–2011"
이석배(경제학부)

Chen Chu(Former Mayor of Kaohsiung)

박진범, 김영철(KBS PD)

6/10
아시아연구소
〈브라운백세미나〉 (3) Economy of Scale, Division of Labour and Deskilling in a Creative Industry: The Transformation of Labour Process in Xianyou Traditional Furniture Cluster, China
Jung Won Son(U. College London)

6/11
아시아연구소
〈콜로키움〉 Iran's view on East Asia
Abdolrassoul Mohajer Hejazi(이란 외교부 동아시아태평양 국장)
박현도(명지대)

6/11
중점연구소
〈워크숍〉 사례로 배우는 한국 기업 중국 진출 노하우
박승찬(중국경영연구소 소장)

6/15
민주주의와경제발전프로그램/한국정치연구소
〈콜로키움〉 (2) 지역 인터넷 커뮤니티와 시민민주주의
송경재(경희대)

6/17
아시아연구소
〈브라운백세미나〉 (4) Make a Prevention Intervention with the Ageven Sheet: First Results of Experimentation Conducted with French High School Students Living in France and Korea
Imaine Sahed(EHESS)

6/23
중앙아시아센터/ 한국연구재단
〈세미나〉 카자흐스탄 고려인 전통생활문화: 134명의 현지 고려인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아서
강정원(인류학과)
고가영(아시아연구소)
남영호(신한대)
양승조(아시아연구소)
정형호(전북대 무형문화연구소)
한율리야(인류학과)

7/13
민주주의와경제발전프로그램/한국정치연구소
〈콜로키움〉 (3) 사회적경제와 시민정치의 발전
Hiroki Miura(한국정치연구소)

7/14
대중문화 프로그램
〈워크숍〉 (3) 동아시아 창의 청년 연구팀 워크숍
김수환(한국외대)
변지민(웹툰작가 무적핑크)

7/14–15
동북아시아센터
〈워크숍〉 동아시아 냉전과 탈냉전의 경관: 금문도와 서해5도
김민환(아시아연구소)
전원근(아시아연구소)
박진흠(사회학과)

7/14
환경협력프로그램/ 아시아에너지환경지속가능발전연구소/ 환경대학원 이도원 교수 생태연구실
〈세미나〉 (1) 회복탄력성 연구 세미나: 한국 지역 사회–생태 시스템의 회복탄력성
강상준(국립강릉원주대)
강신규(강원대)
김정규(고려대)
전대욱(한국지방행정연구원)

7/15
아시아연구소/ 외교통상부/ 극동연방대/ 제주평화연구원
Northeast Asia Peace and Cooperation Initiative between Russia and South Korea
Audrey Gubin(FEFU)
신범식(정치외교학부)
한인택(JPI)
윤익중(한림대)
성원용(인천대)
Tagir Khuziyatov(FEFU)
이성우(JPI)
도종윤(JPI)
남영호(신한대)
Sergei Sevastianov(FEFU)

7/27–28
동북아시아센터/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거제시
〈학술심포지움〉 거제도 포로수용소 세계와 만나다: 포로수용소유적공원의 발전방향
정근식(아시아연구소)
Kobayashi Somei(Nihon U.)
전갑생(아시아연구소)
최정은(김해클레이아크미술관 관장)

8/10
민주주의와경제발전프로그램/한국정치연구소
〈콜로키움〉 (4) "지역의 시민 정치와 지역 거버넌스: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가능성이 있나?"
하승우(풀뿌리자치연구소 이음)

8/21
한국사회과학자료원
〈워크숍〉 한국사회과학자료원 컨소시엄 대표자회의
이재열(사회학과)
김석호(사회학과)
박원호(정치외교학부)

8/28
동북아시아센터
〈콜로키움〉 대만사 사료의 디지털화에 대하여: 중앙연구원 대만사연구소의 소장자료와 연구를 중심으로
Zhong Shumin(Academia Sinica Institute of Taiwan History)

9/10
동남아시아센터
〈초청강연〉 메콩지역의 물과 녹색성장
홍일표(한국건설기술연구원)

9/11
아시아연구소/ 사회과학대학
사회대 40주년 기념: 사회대–아시아연구소 공동학술회의| 아시아 민주주의와 사회변동
이봉주(사회복지학과)
강정원(인류학과)
김용창(지리학과)
강원택(정치외교학부)
한준(연세대)
한규섭(언론정보학과)

9/16
SSK 동아시아도시연구단
〈콜로키움〉 동아시아 냉전과 위험경관 생산의 지정학
정욱식(평화네트워크 대표)
홍덕화(사회학과)

9/17
아시아연구소/ 주한 프랑스문화원/ 주한 독일 문화원
〈세미나〉 디지털 세계에서의 사생활
Antonio Casilli(Digital Humanities Associations, Telecom ParisTech)
Ulrike Ackermann(SRH U., Heidelberg)

9/18
민주주의와경제발전프로그램/한국정치연구소
〈콜로키움〉 (5) 지구시민사회의 새로운 플랫폼, 지구정의운동 톺아보기
공석기(아시아연구소)

9/21
동남아시아센터
〈초청강연〉 Mekong Studies Networking
Watcharas Leelawath(Director, Mekong Institute)

9/22
중앙아시아센터
〈초청강연〉 (6) The affective politics of sovereignty: Reflecting on the 2010 conflict in Kyrgyzstan
David Gullette(U. of Central Asia)

9/22
아시아연구소
〈대사초청강연〉 외교관의 눈으로 본 중동정세
신현석(제주 국제연수센터 소장)

10/2
SSK 동아시아도시연구단
〈콜로키움〉 한국의 발전주의 도시화와 강남 만들기
지주형(경남대)
임서환(전 주택도시연구원)

신현석(제주 국제연수센터 소장)

Jeffrey Alexander(Yale U.)

10/13

아시아-글로벌 경제질서 프로그램

〈세미나〉 "Seminar on Asia and Global Economic Order"

박지형(경제학부)
안덕근(국제대학원)
이석배(경제학부)

10/16

중점연구소

〈세미나〉 Never having to say I am sorry?: 위안부 문제와 전후 일본

Hayashi Kaori(U. of Tokyo)
Yutaka Shuichi(The Asahi Shimbun)

10/19

시민사회프로그램/ 한국사회과학협의회/ 한국이론사회학회

〈특별강연〉 Contemporary Morality: Crisis, Societalization, and Civil Repair

Jeffrey Alexander(Yale U.)

10/21

SSK 동아시아도시연구단

〈국제학술회의〉 Gentrification in the Context of East Asian Developmental Urbanization

Hsu Jinn Yuh(National Taiwan U.)
Saito Asato(Yokohama National U.)
Shin Hyun Bang(London School of Economics)

10/21

동남아시아센터

〈초청강연〉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의 Aid for trade 동향과 전망

곽성일(대외경제정책연구소)

10/21

민주주의와경제발전프로그램/한국정치연구소

〈콜로키움〉 (6) 민주주의 관점에서 본 추첨 시민의회

이지문(연세대)

10/21, 22, 11/13, 17

아시아연구소/ 환경재단/ 수도권특성화대학사업단/ 한국일보

토크콘서트 그린JOB을 만나다

김철(SK케미칼 대표이사)
남상민(UN ESCAP 환경담당관)
이수영(코오롱워터앤에너지 대표이사)
김춘이(환경운동연합 활동처장)
김종갑(지엔스코리아 회장)
임의균(슬로워크 대표)
한비야(UN 중앙긴급대응기금 자문위원)
김나리(유한킴벌리 마케팅 인사이트팀)

10/22

아시아연구소/ 한국사회과학협의회

〈국제학술회의〉 Capitalism and Capitalisms in Asia: Origin, Commonality and Diversity

Alvin Y. So(Hong Kong U. of Science and Technology)
Yin-Wah Chu(Hong Kong Baptist U.)
Wolf Schäfer(Stony Brook U.)
Markus Pohlmann(Heidelberg U.)
강명구(언론정보학과)
김종철(아시아연구소)
Rodrigo Luiz Medeiros da Silva(Federal U. for Latin American Integration)
Shimizu Takashi(U. of Tokyo)
Gary Herrigel(U. of Chicago)
이준구(한양대)
임현진(서울대)
Hideaki Miyajima(Waseda U.)
Thomas Kalinowski(Ewha Womans U.)
김형기(경북대)
장진호(광주과학기술원)
Tobias ten Brink(Goethe U., Frankfurt)
Giwook Shin(Director, The Walter H. Shorenstein Asia-Pacific Research Center, Stanford U.)
Andrew Rosser(Director, Indo-Pacific Governance Research Centre, U. of Adelaide)

10/26

아시아연구소/ 동북아시아센터

〈세미나〉 아시아연구소 세미나

윤상혁(평양의학대학, 척추재활연구소 공동소장)
Mark Kim(경제인)

10/27

중앙아시아센터/ 러시아연구소/ 러시아국제관계위원회/ 국제안보교류협회

〈국제학술회의〉 한-러 수교 25주년 기념 국제학술회의: 동북아시아 안보와 한국-러시아의 전략 협력

Gleb A. Ivashentsov(ex-Ambassador, Embassy of Russian Federation to Republic of Korea)
신범식(정치외교학부)
위성락(전 주러 대한민국 대사)
고재남(국립외교원)
김광우(국제안보교류협회)

10/29

아시아연구소

〈특별강연〉 Industrialization of China and India: focusing on the impacts in Asia

Jayati Ghosh(Jawaharlalnehru U.)

10/29

미-중관계 프로그램

〈미-중관계 세미나〉 (16) The Rise of China and the U.S.-Japan Alliance

Chikako UEKI(Waseda U.)

10/29-31

동북아시아센터/ 제주4.3평화재단/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월드컬처오픈(WCO)

〈국제학술심포지움〉 제5회 제주4.3 평화포럼: 제주4.3미래를 말한다, 그리고 평화

정근식(아시아연구소)
Gavan MaCormack(Australian Nat'l U.)
Kawamitsu Shinichi(Okinawan Poet)
Lim John Chuan-tiong(Academia Sinica)
이지원(한림대)
강성현(성공회대)
Namihira Tsuneo(U. of the Ryukyus)
Chiang Powei(Nat'l Quemoy U.)
IIshigaki Kinsei(Iriomote community activist)
정영신(제주대)

11/2

동북아시아센터

〈콜로키움〉 근대 동아시아사 내부의 두 개의 병합 - 일본제국에 의한 류큐병합과 한국병합

Namihira Chino(U. of Ryukyus)

11/3

중앙아시아센터/ 한국연구재단

〈초청강연〉 (7) 우즈베키스탄과 고려인 Uzbekistan and Koryo-saram

전대완(전 주우즈베키스탄 한국 대사)

11/3

아시아연구소

〈브라운백세미나〉(1) A Human Geographer's Ethiopian Journey

Yun Oh Soon(Social Enterprise Activation Center)

11/5

아시아연구소/ 사회과학대학

〈특별강연〉 광복 70년, 한일수교 50년에 한일관계를 다시 바라본다: 하토야마 전 일본총리 특별강연

Hatoyama Yukio(전 일본 총리)

11/6

시민사회프로그램/ Korean Social Science Research Council

〈국제학술회의〉 2015 KAPS and ASOPS Joint Annual Conference

황석만(창원대)
장인호(광주과기대)
공석기(아시아연구소)
Toru, Oga (Kyushu U.)
Hiroyuki Mitsuishi (PV-Net Solar Power Network)
Hiroshi Matsuhisa (Kyoto U.)

11/6-7

미-중관계 프로그램/ 일본 동경대학교 대안정책연구소(PARI)

〈워크숍〉 4th Korea-Japan Dialogue on U.S.-China Relations and East Asian Security

Satoru MORI(Hosei U.)
최우선(국립외교원)
여유경(경희대)
Tasaki Suzuki(Aichi Prefectural U.)
Aoyama Rumi(Waseda U.)
최명해(삼성경제연구원)

Gary Herrigel(U. of Chicago)

Hatoyama Yukio(전 일본 총리)

11/11

아시아연구소

〈브라운백세미나〉 (2) Compare Zoning: The Geopolitical Economy of Special Zones in Taiwan and Korea

Hsu Jinn Yuh(National Taiwan U.)

11/11

동남아시아센터

〈초청강연〉 이슬람 금융의 현황과 전망

Ahmad Hidayat Buang(Islamic Academy at University of Malaya)
박광석(한국은행)

11/12

대중문화 프로그램

〈특별강연〉 소셜 미디어 시대의 과학 커뮤니케이션

Jin Jianbin(Tsinghua U.)

11/17

동북아시아센터/ 바른 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

〈국내학술회의〉 북한의 대학: 역사, 현실, 전망

정근식(사회학과)
강명숙(배재대)
박성춘(윤리교육과)
이춘근(과학기술정책연구원)
황상익(의사학교실)
최윤재(농생명공학부)
이은주(생명과학부)
김형수(통일교육원)

11/17

시민사회 프로그램

〈정책포럼〉 협동조합정책포럼

강신욱(진안 마을만들기지원센터)
김기태(한국협동조합연구소)
김성균(성결대)
안대성(완주 로컬푸드협동조합)
이창환(마포 사단법인마을)
이형배(대구 사회적협동조합 동행)

11/18

아시아연구소

〈브라운백세미나〉 (3) Global Financial Markets and Global Financial Class

Sighard Neckel(Goethe-University Frankfurt)

11/18

민주주의와경제발전프로그램/한국정치연구소

〈콜로키움〉 (7) 후기산업화의 '좋은 시민'과 산업화식 '정당정치'의 부조화

정상호(서원대)

11/19

미-중관계 프로그램

〈미-중관계 세미나〉 (17) Sino-U.S. Cooperation on North Korea: A Chinese Perspective

GONG Keyu(Shanghai Institutes For International Studies)

11/20

동북아시아센터

〈콜로키움〉 NSC 81, Prisoners of War Reorientation, and the Doubling of the Length of the Korean War

Chang Cheng(Hong Kong U. of Science and Technology)

11/20

동북아시아센터

〈콜로키움〉 중국의 압축적 근대성에 대한 탐색

Piao Guang Xing(Minzu U. of China)

11/21

동북아시아센터/ 한국구술사학회

〈국제학술회의〉 한국구술사학회 2015년 동계 국제학술대회: 경계를 넘은 사람들의 생활세계와 구술사- 在日에서 전쟁포로까지

고성만(Ritsumeikan U.)
정계향(울산대),
Chang Cheng(Hong Kong U. of Science and Technology)
Zhang Xin(Communication U. of China)
Makuochung(National Chong Chung U.)
정근식(아시아연구소)
김란(서울대)

11/25

아시아연구소

〈브라운백세미나〉 (4) Spatiotemporal Changes of Built-up Land Expansion and Carbon Emissions caused by the Chinese Construction Industry

Xiaowei Chuai(Nanjing U.)

11/25

아시아연구소/ 중민사회이론연구재단

〈특별강연〉 파수꾼 민주주의: 위험사회 극복을 위한 시민의 적극적 역할

John Keane(U. of Sydney)

11/25

동남아시아센터

〈기업설명회〉 소비시장으로서 아세안경제공동체: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소비 트렌드와 문화

김형준(강원대)
이응철(덕성여대)
최경희(아시아연구소)
이지혁(아시아연구소)
정법모(아시아연구소)
엄은희(아시아연구소)

11/27

서울대학교/ 홋카이도 대학교

〈국제학술회의〉 Travelling Asia and Geographical Imaginaries

강명구(아시아연구소 소장)
남은영(아시아연구소)
Okamoto Ryosuke(Hokkaido U.)
Zhou Qian(Hokkaido U.)
Hwang Sung Bin(Rikkyo U.)
Hasan Efe Sevin(Kadir Has U.)

12/1

아시아연구소

제3회 아시아연구소 연합학술회의: 아시아연구소의 아시아연구

정근식(사회학과)
이준표(아시아연구소)
김의영(정치외교학부)
신혜선(아시아연구소)
김동완(아시아연구소)
은석(사회복지학과)

12/1

동남아시아센터

〈초청강연〉 Southeast Asia and Global Halal Production, Trade, Standards and Consumption

Johan Fisher(Roskilde U.)

12/2

아시아연구소

〈브라운백세미나〉 (5) Urban Development and Mega-events, looking at Guangzhou and Incheon experiences

Shin Hyun Bang(London School of Economics and Political Science)

12/2, 9, 15, 22

SSK 동아시아도시연구단

〈세미나〉 전지구적 젠트리피케이션의 동향과 전망

Shin Hyun Bang(London School of Economics and Political Science)

12/8

아시아연구소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2015년 박사학위논문상 (SNUAC Dissertation Award) 시상식 및 발표회

김경태(고려대)

12/8

아시아연구소

2015년 아시아연구소의 아시아연구: 아시아기초연구지원사업 결과보고회

김형종(동양사학과)
신욱희(정치외교학부)
이준구(한양대)
이정윤(부경대)
송영훈(강원대)
김승룡(부산대)
최정욱(건국대)
김태균(국제대학원)

12/10

아시아연구소

〈특별강연〉 Beyond Boundaries: Some Thoughts on IIAS's Current Activities aimed at Framing Asian Studies in the Global Context.

Philippe Peycam(Director, International Institute for Asian Studies, Netherlands)

John Keane(U. of Sydney)

Philippe Peycam(Director, International Institute for Asian Studies, Netherlands)

12/10

미-중관계 프로그램

〈미-중관계 세미나〉 (18) 미중 사이 한국의 외교 – 평가와 해법

손열(연세대)
신범철(외교부 정책기획관)
이동률(동덕여대)
김한권(국립외교원)

12/10

동남아시아센터

〈초청강연〉 Disentangling the ecopolitics and geopolitics of Mekong hydropower development

Philip Hirsch(Director, Mekong Research Group (AMRC), The U. of Sydney)

12/11

중앙아시아센터

〈국내학술회의〉 중앙아시아 지역의 형성과 역동성: 유라시아 공간의 주변에서 중심으로

양승조(아시아연구소)
고가영(아시아연구소
김태연(아시아연구소)
정재원(국민대)
신범식(정치외교학부)
윤익중(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조영관(수출입은행)

12/15

중앙아시아센터/ 한국연구재단

〈워크숍〉 우즈베키스탄과 고려인 전통생활 문화

양승조(아시아연구소)
최아영(아시아연구소)
정형호(전북대)

12/16

민주주의와경제발전프로그램/한국정치연구소

〈콜로키움〉 (8) 무브온(MoveOn) 효과: 한국 시민정치의 전환

안병진(경희사이버대)

12/17

초국경 아시아 프로그램

〈워크숍〉 초국적 이동과 공간의 변용에서 본 다롄연구

Zhang Xiaogang(Dalian U.)
Choe Pongnyong(Dalian U.)
정근식(아시아연구소)
김종철(아시아연구소)
신혜선(아시아연구소)
박철현(국민대)
김고운(아시아연구소)
조정우(한림대)
김란(아시아연구소)

12/18

환경협력프로그램/ 아시아에너지환경지속가능발전연구소/ 환경대학원 이도원 교수 생태연구실

〈세미나〉 (2) 회복탄력성 연구의 사례

전진형(고려대)
박제량(홍익대)
전대욱(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하수정(국토연구원)

12/23

SSK 동아시아도시연구단

〈도시정책포럼〉 (1) 젠트리피케이션 없는 도시재생은 가능한가?

Shin Hyun Bang(London School of Economics and Political Science)
조성찬(토지+자유연구소)
임준홍(충남연구원)
라도삼(서울연구원)
정원오(성동구청장)

12/28

동남아시아센터

〈초청강연〉 소비자 연구에 대한 기업의 요구 변화와 새로운 조사 방법 소개

강덕용(한국리서치)

12/29

대중문화 프로그램

〈워크숍〉 (4) 2015 동아시아 창의 청년 워크숍 "Us and Them : Korean Indie Rock in a K-Pop World"

Stephen Epstein(Victoria U. of Wellington)

12/29

한국사회과학자료원

제4회 KOSSDA 논문상 시상

류지아(이화여대)
탁장한(사회복지학과)
신화용(정치외교학부)

1/19

동북아시아센터/ 광주 비엔날레

〈특별강연〉 In the midst of / 예술의 사회적 역할과 스톡홀름 텐스타 쿤스트홀 사례

Maria Lind(Gwangju Biennale / Chef Director)

1/22

한국사회과학자료원

한국사회과학자료원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이관 개원식 – 〈국내학술회의〉 사회과학 연구자료의 수집, 아카이빙, 확산 경험

이종구(성공회대 노동사연구소 소장)
장덕진(사회발전연구소 소장)
김인희(서울연구원)
김석호(사회학과)
장지연(한국노동연구원)
박명규(통일평화연구원 원장)

1/22

민주주의와경제발전프로그램/한국정치연구소

〈콜로키움〉 (9) 시민, 민주주의, 시민민주주의

김주형(정치외교학부)

1/30-31

한국사회과학자료원

〈국제학술회의〉 The Conference on Data Sharing and Beyond among East Asian Countries

Hiroshi Ishida(U. of Tokyo)
Satoshi Miwa(U. of Tokyo)
Pei Shan Liao(Academia Sinica)
Yi Shiou Chiou(Academia Sinica)
Guihua Xie(Renmin U.)
Lina Tang(Renmin U.)
이재열(사회학과)
박원호(정치외교학부)
김석호(사회학과)
김대훈(KOSSDA)
진윤아(KOSSDA)

2/12

초국경 아시아 프로그램

〈워크숍〉 북-중-러 소지역주의: 접경지역의 초국경적 이동과 공간의 재구성

박배균(지리교육과)
신범식(정치외교학부)
원동욱(동아대)
고가영(아시아연구소)
김민환(아시아연구소)
박철현(국민대)
이애리아(Waseda U.)
이창호(한양대)
최영진(경희대)

2/19

동남아시아센터

〈초청강연〉 CLMV 국가들의 에너지 분야 원조 현황과 개선방안

임소영(산업연구원)

Jayati Ghosh(Jawaharlalnehru U.)

The Conference on Data Sharing and Beyond among East Asian Countries

교류협력

미래 발전을 위한 연구교류 협력 네트워크 구축

서울대 아시아연구소의 다양한 교류협력 프로그램은 연구자 간 교류를 지원하며 공동연구의 기회를 마련하고, 더 나아가 국내외 대학 및 연구기관들과의 연구교류 협력 네트워크 발전을 위한 기초를 제공한다. 2015년은 서울대 아시아연구소의 성장과 함께 국내외 교류협력이 대폭적으로 증가하고, 개인 연구자들 간 협력이 연구기관 간의 협력 네트워크로 발전해간 한 해였다.

먼저, 아시아연구소 방문학자 프로그램을 통해 20여 명의 국내외 아시아 전문 연구자가 아시아연구소를 방문, 아시아연구소의 연구진과 연구관심을 나누며 공동연구를 진행했다. 방문학자들은 분기별로 진행되는 Visiting Scholars Brown Bag Seminar Series를 통해 최신의 연구 성과를 동료 연구자들과 공유하며,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에 대한 연구를 진전시켰다.

해외 대학 및 아시아 전문 연구기관들과의 교류협력 역시 대폭 증대하였다. 5년째 지속되는 Global e-School Program을 통해 아시아와 유럽 주요 대학들과의 교육협력이 지속되고 있고, 해외 대학 교수진 및 학생들과의 상호방문 확대를 통해 e-School Program은 아시아연구소의 실질적인 교류 프로그램으로 성장하였다.

2015년 해외 연구자 및 기관들과의 교류협력 확대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아시아지역 연구자 및 기관들과의 교류 확대였다. 도쿄대, 규슈대, 홋카이도대, 도호쿠대, 교토대, 와세다대, 리츠메이칸대를 포함한 일본 주요 대학들과의 교류 확대는 연구자 개인의 방문을 넘어, 연구기관 간의 공동연구 진행으로 발전했다. 2015년 11월 5일 하토야마 유기오 전 일본 총리의 특별강연은 아시아연구소가 일본의 다양한 기관들과 협력 확대하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었다.

중국과 대만을 포함한 중화권 연구자 및 기관과의 교류 역시 매우 활발하였다. 북경대, 청화대, 인민대, 전매대, 대련대, 연변대, 난징대, 중국사회과학원, 상하이국제문제연구원, 홍콩과학기술대, 대만국립대, 대만중앙연구원 등을 포함한 중국과 대만의 주요 연구기관들과의 교류 활성화는 공동 연구사업의 발전으로 연결되고 있다. 중국 및 일본의 연구자와 연구기관들과의 교류협력 확대는 아시아연구소의 한·중·일 비교연구 활성화를 위한 기초가 되고 있다.

또한, 싱가포르국립대, 난양공대, 인도네시아국립대, 가자마다대, 하노이인문사회대, 베트남 사회과학원, 메콩인스티튜트, 말라야대, 그리고 호주국립대, 멜버른대, 시드니대, 아델라이드대 등을 포함한 아시아 각국 연구자들과의 교류 역시 매우 활발히 진행되었다.

유럽 및 미주 지역 연구자 및 기관들과의 교류 역시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었다. 런던대, 하이델베르크대, 라이덴대, 파리디드로대, 러시아극동연방대, 상트페테르부르크대를 포함한 유럽 주요 대학과 UC Berkeley, UC Davis, UCLA, 브리티시컬럼비아대 등을 포함하는 미주 대학들과의 교류도 시작되어 향후 본격적인 협력 확대가 기대되고 있다.

아시아연구소의 성장은 국내 기관들과의 교류 및 공동사업을 위한 협력의 증대를 가져왔다. 아시아연구소는 다양한 학술행사 및 교육 프로그램을 국내 아시아 전문 연구기관,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언론기관 등과의 협력을 통해 진행하였다. 2015년 아시아연구소와 함께 학술행사 및 교류 프로그램을 진행한 기관들은 한국연구재단, 한국국제교류재단, 한국고등교육재단, 환경재단, 한국사회과학협의회, 한-아세안센터, 한중일 3국 협력사무국, KOTRA 글로벌연수원, 제주국제연수센터, 제주평화연구원, 제주 4.3 평화재단,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광주비엔날레, 이스탄불문화원, 프랑스문화원, 독일문화원, 명지대 중동문제연구소, 조선일보, 한겨레신문, KBS이다.

아시아연구소는 2015년 서울대 내부 연구자 네트워크 구축 및 연구기관 간의 협력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다. 교내 통일평화연구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인문학연구원, 일본연구소, 중국연구소, 역사연구소, 아시아문명학부, 러시아연구소, 한국정치연구소와의 협력을 확대하였고, 외국인 교수 간담회를 통해 다양한 교내 연구자들의 의견을 청취하였다.

아시아연구소의 교류협력 프로그램은 연구자 개인들 간의 교류를 기관 간의 안정적인 협력 네트워크로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2016년부터는 해외 학자 초청 프로그램과 연구기관 간의 협력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프로그램을 시작할 예정이다.

아시아 기초연구 지원사업

아시아연구소는 국내에서 취약한 아시아 권역별 '지역연구'와 국가적 차원에서 전략적 중요성이 증대하고 있는 '주제연구'를 결합한 우수한 아시아 기초연구를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2015년도에도 기획과제, 아시아연구 저술 지원사업, 박사논문 작성 지원사업, SNUAC 박사학위논문상 등을 통해 아시아 연구를 수행하는 학자들을 지원함으로써 다양한 아시아 기초연구가 생산될 수 있는 기반을 다졌다.

또한, 매년 아시아연구소 학술연구부의 주최로 '아시아연구소의 아시아연구: 아시아기초연구지원사업 결과보고회'를 개최하여 한 해 동안 아시아기초연구지원사업에 참여한 연구진들의 연구 주제와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다. 아시아기초연구지원사업 결과보고회는 세계 아시아 연구의 동향을 파악하고, 아시아 연구 주체로서의 독자적인 지식 생산의 방향과 내용을 진지하게 고민할 수 있는 자리이다. 무엇보다 1년에 한 번씩 지역과 주제의 결합에 기초한 연구기반을 마련하는 아시아연구소의 비전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이다. 앞으로도 아시아연구소는 아시아 기초연구 지원사업을 통해 서구 중심의 방법론과 지식 생산 구조를 넘어선 학문연구의 독자성과 자립화를 구현해 나갈 것이다.

2015년도 아시아연구 기획과제 사업

- ☐ 김은미 외(언론정보학과) | 중국 문화산업 구조변동의 문화사
- ☐ 박찬욱(정치외교학부) | 최근의 국가의회 총선거와 민주정치에 대한 전망: 2015년 터키 총선의 사례와 비교를 통한 2016년 한국 총선의 결과와 함의
- ☐ 손정렬 외(지리학과) | 네트워크로 바라본 아시아: 사회과학적 관점에서
- ☐ 신욱희 외(정치외교학부) | 글로벌 냉전과 동아시아
- ☐ 윤상인 외(아시아언어문명학부) | 1920~30년대 동아시아의 문화이동
- ☐ 정근식 외(사회학과) | 아시아연구소 번역총서(2)
- ☐ 조영달(사회교육과) | 고등교육 환경의 변화와 동아시아의 대학 개혁
- ☐ 주경철 외(서양사학과) | 식민지 대학과 오리엔탈리즘의 파생적 전유: 경성제국대학 부속도서관의 서양 오리엔탈리즘 장서들에 대한 분석 및 해제
- ☐ 최예용(보건환경연구소) | 아시아에서 석면산업의 국가 간 이동으로 인한 석면위험의 확산
- ☐ 홍백의(사회복지학과) | 아시아의 가족– 아시아의 가족혁명은 과연 시작되었는가

2015년도 아시아연구 저술 지원사업

- ☐ 고종환(부경대 국제지역학부) | International Migration in East Asia and Its Economic Impact
- ☐ 박정희(경성대 글로벌차이나연구소) | 중국 고도(古都) 문화정체성의 재구성 양상 연구: 문화텍스트와 도시 경관을 중심으로
- ☐ 이영섭(국제대학원) | East Asian Economic Integration and Inter-Korean Cooperation
- ☐ 이재민(법학과) | A Surge of FTAs in East Asian Countries and Dispute Settlement Mechanism– Unique Characteristics, Inherent Limitations and Areas of Improvement

2015년도 SNUAC 박사논문 작성 지원사업

- ☐ 김선(보건대학원)| 주요 아시아 국가의 의약품 생산 공급 체계의 유형화 연구: 공공성을 중심으로 *
- ☐ 김정민(국제대학원)| 동아시아 경제 질서의 재편과 한미 지적재산권 협정(1986): 배경, 과정 및 영향에 관한 역사적 '이론적' 실증적 연구 *
- ☐ 유승환(국문과)| 황석영 문학과 동아시아 근대의 서사
- ☐ 오승희(이화여대 정치외교학과)| 주권투쟁과 국가 승인: 전후 일본의 중국 대표권 문제와 외교적 위선(1952~1972) *

* 학위 논문 완료

2015년도 박사학위논문상

- ☐ 김경태(고려대/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임진전쟁기 강화교섭 연구

아시아연구소 외부 연구지원사업

중점연구소 지원사업

과제명: [국고]동아시아 경제사회 공동체의 협력과 통합
연구책임자: 강명구(언론정보학과)
총연구비: 278,210,000원
공동연구원: 김병연(경제학부), 김소영(경제학부), 김재영(경제학부), 박수진(지리학과), 이철인(경제학부), 임혜란(정치외교학부), 정근식(사회학과)
연구 단계: 2단계 3차년도 (2015.9~2016.8)

신흥지역 연구사업

과제명: '문화에 민감한' 시장진출 전략과 지속가능한 경제협력: 말레이-이슬람 문화권의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사례연구
연구책임자: 오명석(인류학과)
총연구비: 290,463,000원
공동연구원: 강명구(언론정보학과), 김형준(강원대), 유창조(동국대), 이응철(덕성여대)
전임연구원: 엄은희, 이지혁, 정법모, 최경희
연구 단계: 2단계 2차년도 (2015.9~2016.8)

SSK(Social Science Korea) 사업

과제명: [중형2년차]국제무역, 통상질서 그리고 표준화
연구책임자: 박지형(경제학부)
총연구비: 143,902,500원
공동연구원: 안덕근(국제대학원), 이지홍(경제학부)
전임연구원: 김민정, 라미령
연구 단계: 2단계 2연차 (2015.9~2016.8)

과제명: [중형2년차]세계화, 동아시아 도시의 위기와 전환
연구책임자: 박배균(지리교육과)
총연구비: 296,341,000원
공동연구원: 김동완(경남대), 신현방(런던정경대), 아사토 사이토(요코하마국립대), 이상헌(한신대), 이승욱(카이스트), 장세훈(동아대), 조성찬(토지+자유연구소), 진유 수(대만국립대), 짐 글래스만(브리티시컬럼비아대)
전임연구원: 황진태, 김은혜
연구 단계: 2단계 2연차 (2015.9~2016.8)

토대 연구

과제명: 현지조사를 통한 중앙아시아 고려인의 전통생활문화 총서 및 DB구축
연구책임자: 강정원(인류학과)
총연구비: 254,493,000원
공동연구원: 강명구(언론정보학과), 고가영(아시아연구소), 남영호(신한대), 정형호(전북대)
전임연구원: 양승조, 최아영
연구 단계: 1단계 2연차 (2015.9~2016.8)

글로벌네트워크지원사업 중국협력사업

과제명: 동아시아 창의세대의 비교 연구-한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연구책임자: 김홍중(사회학과)
총연구비: 103,120,000원
공동연구원: 김석호(사회학과), 주윤정(아시아연구소), 진젠빈(칭화대), 추야제(푸단대)
연구 단계: 1단계 2연차 (2015.10~2016.9)

일반연구 지원사업

과제명: 협동조합의 정치경제: 연대와 효율의 혼종성(混種性 · Hybridity)에 대한 학제적 연구
연구책임자: 김의영(정치외교학부)
총연구비: 127,481,000원
공동연구원: 권헌익(케임브리지대), 안도경(정치외교학부), 미우라 히로키(한국정치연구소), 한신갑(사회학과)
연구 단계: 3차년도 (2015.9~2016.8)

과제명: 중앙아시아 이슬람의 역사적 경험과 현재적 선택
연구책임자: 신범식(정치외교학부)
총연구비: 67,543,000원
공동연구원: 고가영(아시아연구소), 양승조(아시아연구소), 오원교(경북대)
전임연구원: 김태연(아시아연구소)
연구 단계: 1연차 (2015.11~2016.10)

과제명: 패권국-부상국 간의 상호 (오)인식: 영-미 세력전이와 미-중 관계의 비교 연구
연구책임자: 안두환(정치외교학부)
공동연구원: 김헌준(고려대), 정재호(정치외교학부),
연구 단계: 1연차 (2015.11~2016.10)

과제명: 메콩 유역 개발과 환경 협력의 딜레마와 거버넌스
연구책임자: 윤순진(환경대학원)
총연구비: 128,900,000원
공동연구원: 엄은희(아시아연구소), 이상국(연세대), 이승호(고려대), 이준표(아시아연구소)
전임연구원: 이요한
연구 단계: 2연차 (2015.12~2016.11)

정책연구 지원사업

과제명: 한국의 사회동향 2015 연구용역 (20150018/통계청)
연구책임자: 이재열 외
총연구비: 89,545,455원
연구기간: 2015/04/07-2015/11/03

과제명: 국내 학술 성과의 해외 교류 거점 구축을 위한 연구 (20150021/교육부)
연구책임자: 오명석 외
총연구비: 27,272,727원
연구기간: 2015/05/01-2015/11/30

과제명: 지역기반 협동조합 활성화 방안 연구 (20150026/기획재정부)
연구책임자: 공석기 외
총연구비: 27,272,727원
연구기간: 2015/06/16-2015/12/24

과제명: 인공위성자료를 활용한 북한 산림현황 분석사업 (20150027/한국임업진흥원)
연구책임자: 박수진 외
총연구비: 35,172,065원
연구기간: 2015/06/19-2015/11/28

과제명: 한산도(추봉, 용초) 포로수용소 기록화사업 용역 (20150028/경상남도 통영시)
연구책임자: 전갑생 외
총연구비: 18,272,728원
연구기간: 2015/07/08-2015/12/04

과제명: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 관리정보시스템 기능개선 및 고도화 (20150029/행정자치부)
연구책임자: 공석기 외
총연구비: 60,000,000원
연구기간: 2015/07/20-2015/12/31

과제명: 국가/산업별 특허혁신지수의 개발에 관한 기초 연구 (20150030/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책임자: 박지형 외
총연구비: 35,279,091원
연구기간: 2015/08/17-2015/12/18

과제명: 기술규제 관점에서의 통상분쟁 사례 조사 분석 (20150042/국가기술표준원)
연구책임자: 안덕근 외
총연구비: 36,362,727원
연구기간: 2015/09/24-2015/12/23

과제명: 녹색성장종합체험전시관 공간배치 및 전시물 등 검수용역 (20150043/경기도 시흥시)
연구책임자: 엄은희 외
총연구비: 15,488,182원
연구기간: 2015/10/15-2015/12/14

*총 연구비는 간접비를 포함한 금액이며, 중점연구소 지원사업 대응자금은 제외한 금액임

교육

아시아연구소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새로운 교육 모델을 통해 전 세계 학생들과 연구자들의 교육을 수행하고 있다. 2015년에는 2011년부터 개설, 운영 중인 아시아연구소의 대표적인 글로벌 교육 프로그램인 e-School Program을 비롯하여 아시아연구소로 이관된 한국사회과학자료원(KOSSDA)의 방법론 교육 프로그램, 동남아 지역으로의 진출을 목표로 하는 지역전문가 교육 심화과정과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 및 연구자들뿐만 아니라 실무자들을 위한 교육의 장을 제공하였다.

KF Global e-School Program

한국사회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기술, 국제관계 등 다양한 측면에서 빠르게 변화함에 따라 아시아연구소에서는 관심이 증대하고 있는 현대 한국학 강의를 해외 수요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한국국제교류재단(Korea Foundation)의 지원을 받아 2011년부터 한국사회를 비교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국제 한국학 강의를 개설, 운영하고 있다. 아시아연구소는 인터넷을 이용한 해외 실시간 화상강의의 새로운 교육모델을 찾기 위해 3개국 공동강의, Moving Class 등의 새로운 실험들을 진행했고, 지난 5년간 아시아와 유럽의 8개국 13개 대학을 대상으로 48개의 강의를 개설했다. e-School Program은 아시아연구소의 핵심 교육프로그램으로, 각 지역 및 국가별 최우수 명문대학을 협력 대상으로 선정하여 교육과 연구,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국제교류를 접목, 결합하며 지속 가능한 새로운 교육모델을 만들어가고 있다.

2015년 아시아연구소의 e-School Program에 참여한 해외 대학은 중국의 북경대, 청화대, 러시아의 고등경제대, 독일의 튀빙겐대, 베를린자유대, 프랑스의 파리7대학(디드로)과 이날코, 베트남 하노이 국립인문사회대 이다. 아시아연구소에서는 지난 1년간 이들 대학의 학부 및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15명의 서울대 교수진이 참여, 정규학점이 부여되는 11개의 강의를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2015년 e-School Program 수강자는 총 217명이다.

또한, e-School Program에서는 2015년 6월 말부터 8월 초까지 한국국제교류재단 지원 및 서울대 국제협력본부와의 협력 하에 '2015년도 KF Global e-School Fellowship Program'을 진행하였다. 2015년 e-School Fellowship Program에서는 2014년도 e-School 강의를 수강한 학생 가운데 4개국 4개 대학 8명의 우수 수강생을 초청하였다. 최종적으로 러시아 고등경제대 2명, 독일 베를린자유대 1명, 베트남 하노이 국립인문사회과학대 2명 등 총 5명의 e-School 우수 수강생이 참가하였다.

2015 e-School 수강생 초청 : SNUAC 동아리와의 만남

6주간 진행된 e-School Fellowship Program 참가 수강생들에게는 왕복 항공료, 국제하계강좌 등록비 및 학비, 기숙사비가 지원되었으며, 서울 방문 기간에는 아시아연구소 동아리 및 인턴 학생들과 교류의 자리를 마련하여 학생들 간 친밀감을 높이고, 한국에 대한 이해를 한층 심화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다.

e-School Program은 아시아연구소 내의 다양한 학술, 교류행사와 연계하여 프로그램의 내용을 풍부히 하고, 해외 수강생들과 교류를 희망하는 국내 학생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여 내실 있는 국제교류 프로그램으로 발전시킬 것이다. 특히 교류와 연계된 e-School Program은 아시아연구소가 2단계 사업 기간(2015~2017년)을 통해 주요 목표로 설정하고 있는 내용이다. 아시아연구소는 해외 수강생 초청 프로그램을 통해 해외 학생들이 서울대에서 제공하는 국제하계강좌를 수강하면서 다양한 체험과 경험을 통해 한국의 역사, 문화, 사회를 짧은 기간 내에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대표적인 교육모델로 발전시켜 갈 계획이다.

2015 가을학기 북경대 온라인 강의: 강명구 교수

※ 2015년 e-School 강의 목록

봄 학기

Understanding Modern Korean Society (University of Social Sciences and Humanities – VNU, Hanoi, Vietnam)

Cultural and Social Transformation of Contemporary Korea (Eberhard Karls Universität Tübingen, Germany)

가을 학기

Understanding Modern Korean Literature (University of Social Sciences and Humanities – VNU, Hanoi, Vietnam)

The Frontiers on Intercultural Communication of Sino-Korea (Peking University, China)

Cross-cultural Explorations in East Asia (Tsinghua University, China)

Introduction to Korean Studies (National Research University Higher School of Economics, Russia)

Korean Political Economy (Eberhard Karls Universität Tübingen, Germany)

Theories and Research Methods for Korean Studies (Freie Universität Berlin, Germany)

Research Methods in Korean Studies (Université Paris Diderot, France & Institut National des Langues et Civilisations Orientales, France)

겨울 학기

Introduction to Korean Politics (National Research University Higher School of Economics, Russia)

Social Traditions of Korea: Contemporary Korean Society (National Research University Higher School of Economics, Russia)

2015 e-School 강의 교수

강명구(언론정보학과)

김은미(언론정보학과)

김의영(정치외교학부)

김종욱(국어국문학과)

김홍중(사회학과)

김희민(사회교육과)

박경숙(사회학과)

박배균(지리교육과)

배은경(사회학과)

손유경(국어국문학과)

신의항(아시아연구소)

은기수(국제대학원)

임현진(사회학과)

정홍익(행정대학원)

홍석경(언론정보학과)

KOSSDA 방법론 교육 프로그램

한국사회과학자료원은 연구자와 대학원생의 자료 분석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방법론 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KOSSDA의 방법론 교육 프로그램은 국내 최정상급 교수들이 강의를 담당하며, 다양한 교육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강의와 실습을 병행하는 동·하계 방법론 워크숍과 강의 중심의 춘·추계 방법론 단기강좌의 형태로 개설되고 있다. 2015년 춘계(4월 4일~4월 25일)와 추계(10월 10일~11월 28일) 단기강좌에는 위계선형모형, 구조방정식, 네트워크 분석, 패널 분석 등 고급 통계학 4개 과목이 각각 개설되어 총 281명이 수강하였다. 또한, 2015년 하계(7월 6일~8월 14일)와 2016년 동계(1월 4일~2월 26일) 워크숍에는 기초 통계학과 중급 및 고급 통계학을 포함하는 15개 강좌가 개설되어 총 567명이 수강하였다. 2016년 동계 워크숍에서는 수강자의 수요와 교과과정에 맞게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1주 과정의 강좌를 시범적으로 열었는데, 특히 베이지안 분석 기초과정은 수강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동남아지역전문가 심화과정: 인도네시아 편

동남아시아센터에서는 KOTRA 글로벌 연수원과 공동으로 인도네시아 진출을 준비하는 기업 임직원 및 일반인 대상으로 지역설명회 사업을 개최하고 있다. 최근 인도네시아가 한국사회에서 투자 및 기업진출 국가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와 유사한 프로그램들이 타 기관을 통해서도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동남아시아센터에서는 이러한 지역전문가 과정과 차별화를 목적으로 지역전문가 심화과정을 기획, 집행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 과정은 분야별 인도네시아 최고전문가들을 통해 인도네시아로 진출한 한국 기업들의 사례를 비롯해 인도네시아의 경제 동향, 소비 행태 및 노사 관계 등을 다루며 이틀간 총 8회에 걸쳐 제공되었다.

주관: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동남아시아센터-KOTRA 글로벌연수원
일시: 2015. 5. 21~22(목~금)
수강인원(대상): 16명(기업 임직원 및 일반인)
강의진: 김형준(강원대), 김홍현(삼일 회계법인), 박선우(정우 하이테크)
엄은희(아시아연구소), 이장희(KOTRA), 전제성(전북대)
정태훈(삼일 회계법인) 조윤미(덕성여대) 최경희(아시아연구소)

2015 가을학기 튀빙겐대 오프라인 강의 : 은기수 교수

지역전문가교육 심화과정 : 인도네시아 편

학문후속세대

아시아연구소는 미래의 아시아 연구를 주도할 학문후속세대 양성 사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연구연수생 제도를 통해 다양한 연구와 실무능력을 겸비한 연구연수생을 배출하고 있으며, 아시아의 문화와 주제에 관심을 갖고 활발히 활동 중인 2개의 교내 동아리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으로 연구 참여를 꿈꾸는 학문후속세대에게 다양한 경험의 장을 제공하고 있다.

연구연수생, 연구와 교류 통한 아시아 전문가 양성

아시아연구소에서는 미래의 아시아 전문가 양성을 목적으로 연구연수생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연구연수생은 아시아 연구에 관심을 둔 대학생과 대학원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6년 2월까지 4기 연구연수생 운영을 마무리하였다. 연구연수생들에게는 아시아 연구와 관련하여 학계 및 사회의 우수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과 연구 행정을 결합한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진행해오고 있다. 각자의 관심 분야에 따라 아시아연구소에서 진행 중인 연구프로그램 및 지역연구센터에 배치하여 연구뿐만 아니라 다양한 연구 실무 경험의 기회도 제공하고 있다. 2015년에는 13명의 제3기 연구연수생이 2015년 2월 16일부터 8월 14일까지 활동하였으며, 제4기 연구연수생은 5명을 선발하여 2015년 8월 16일부터 2016년 2월 15일까지 활동하였다.

제3기 연구연수생 수료식 기념사진

제3기 연구연수생 명단

권정화(국제대학원)
김민정(와세다대 국제교양학부)
박미란(국제대학원)
신동혁(한국외대 태국어과)
안서영(고고미술사학과)
안향선(북경대 국제관계학원)
이다솜(고려대 영어영문학과)
이슬기(전북대 무역학과)
이현정(중앙대 국제관계학과)
정상락(Monash Univ. Int'l Studies)
정소정(국제대학원)
정승은(Univ. of Wisconsin, Int'l Studies)
주채희(경제학과)

제4기 연구연수생 명단

노태현(역사교육과)
변준경(Cornell Univ. Urban and Regional Studies)
신승민(Uni. of Bradford, Development and Peace Studies)
이지현(서울시립대 국어국문학과)
정서윤(이화여대 대학원 북한학과)

아시아연구 동아리 활동 지원

아시아연구소는 학문후속세대 양성을 위해 아시아의 문화와 주제에 관심을 갖고 활발히 활동 중인 교내의 2개 동아리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아시아의 미래를 고민하는 '아미고'

아미고는 '아시아의 미래를 고민하는 모임'의 약자로, 아시아의 지역별 주제를 선정하여 정기 독서 세미나를 운영하는 동아리다. 매주 열리는정기 독서 세미나 및 아시아 관련 서적의 저자를 초청해 대화를 나누는 북톡을 주요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다.

2015학년도 1학기에는 '러시아의 대외 관계'를 주제로 러시아와 중국의 관계 등의 세부 연구 활동을 펼쳤으며, 다 같이 〈푸틴의 변명〉을 읽고 푸틴이 인기가 높은 이유, 러시아의 석유 정치, 대외 관계 등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2학기에는 회원 각자의 관심 주제에 따라 '필리핀 모로 이슬람 분리주의 운동', '인도의 교육제도 현황과 문제점',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 등의 연구 세미나를 진행했다. 또한, 구소련의 저택 구조인 코뮤날카, 스탈린카, 흐루시쵸프식 아파트 등에 대해 알아보고 중국 주식시장 동향, 일본 부라쿠민에 대한 발표 시간을 가졌다.

한·일 간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고 협력하는 'FICS'

FICS는 'Foundation of Intercultural Cooperation by Students'의 약자로, 한·일 간의 상호 이해를 증진시키고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서울대와 도쿄대 학생들이 주체가 되어 설립한 동아리다. '협동의 촉진-생각의 공유와 새로운 현실에의 도달(Sharing ideas and reaching new realization)'이라는 취지 아래, 2012년 3월에 개최된 서울대-도쿄대 학부 토론회를 계기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였다.

사회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 주제를 정하고, 그내용을 바탕으로 동경대의 FICS UT와 온라인 회의 등을 통해 양국 사회문제의 공통점을 찾으며 해결 방안을 모색해오고 있다. 양국 동아리의 더욱 원활한 교류를 위해 경제, 정치, 역사 분야의 영어 토론회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동경대 캠퍼스에서 세션 활동 중에 모인 FICS 회원들

출판

아시아연구소에서는 아시아 관련 다양한 주제 연구 성과를 다룬 정기 학술지 〈아시아리뷰〉를 연 2회 정기 발행하고 있다. 더불어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을 비롯한 학술 전문 출판사와 함께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총서'와 '세계 속의 아시아 연구' 시리즈 등 아시아 지역의 학문 공동체 구축을 위한 다양한 출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아시아리뷰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에서 연 2회 발행하는 〈아시아리뷰〉는 인문사회과학의 학제적 연구를 통하여 아시아 지역연구와 주제연구의 통합을 모색하며 다양한 아시아 관련 연구 결과를 소개하는 장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아시아 연구'라는 공통된 주제 안에서 경제, 사회, 문화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의 논문을 게재함으로써 학문적 상호 융합을 시도하며, 다각적인 시야에서 미래의 학문적 발전을 모색해나갈 수 있도록 그 방향성을 제시한다.

또한, 정기적인 국제학술대회 개최를 통해 세계 각국의 우수한 학자를 초빙하여 해당 분야의 전문 지식을 공유하며,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논문을 엄선하여 공정한 심사를 통해 학술지에 게재함으로써 새로운 지식 공유의 장을 제공하고 있다. 한편, 〈아시아리뷰〉는 2011년 6월 창간호를 발간하고, 2015년 7월에 연구재단 등재후보지로 선정되었다.

〈아시아리뷰〉 5권 1호(통권 9호)

아시아 음식문화: 기원과 변용

나의 체험적 중화음식 연구: 기초이론과 다양한 실제 | 자오롱광(赵荣光)

근대 일본의 '화양절충(和洋折衷)' 요리의 형성에 나타난 문화변용 | 이시재

동아시아 식품산업의 제국주의와 식민지주의: 깃코망형 간장, 아지노모토, 그리고 인스턴트라면 | 주영하

한국 음식문화의 의미와 표상 | 정혜경

1980년대 이후 대만 음식(cuisine)의 형성: 민난(閩 南)과 학카(客家) 음식의 대두 | 마이클 사오·메이창·메이-후이

신맛, 매운맛, 그리고 날것: 윈난 성의 다이 음식 변천의 역사적 고찰 | 황젠셩(黃建生)

흙 화덕을 통해 본 아시아태평양의 음식과 젠더 | 카와이 도시미츠(河合利光)

냉전문화: 유럽과 동아시아

냉전과 소련군기념비: 중국과 북한에서의 형성, 변화, 영향 | 정근식

냉전과 20세기 사회경제적 역사 | 빌프레드 로스(Wilfried Loth)

냉전 시기 '아시아로부터의' 위험으로서 공산주의 | 악셀 실트(Axel Schildt)

분단국가들의 내전: 탈식민지화와 갈등의 냉전사 | 스티븐 휴 리(Steven Hugh Lee)

서평

동아시아 재균형을 위한 "대담한" 제안?

Brad Glosserman and Scott A. Snyder. 2015. The Japan-South Korea Identity Clash: East Asian Security and the United States.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 백창재

〈아시아리뷰〉 5권 2호(통권 10호)

아시아 자본주의: 기원, 공통성과 다양성

동아시아 근대화와 자본주의 형성 및 전개: 대안적 이론에 의한 해석 | 김경동

21세기 자본주의와 아시아 탐색하기: 금융화의 영향 | 글렌 모건

금융자유화와 동아시아 발전모델의 전형 | 김형기

국가 신자유주의: 자본주의로 가는 중국의 도정에 대한 전망 | 앨빈 소·인화 츄

기업소유권은 정말 중요한가?: 일본 기업지배구조에서 외국인 투자가의 역할 | 미야지마 히데아키·호다 다카아키·오가와 료

약탈적 생산주의를 넘어: 신질서체제 이후 인도네시아의 복지자본주의 정치경제 | 앤드류 로서·마리크 반 디어맨

냉전문화 2: 아시아와 유럽

냉전의 중심, 한국 | 브루스 커밍스

동아시아 '냉전의 섬'에서의 평화 사상과 연대 | 정근식

400년의 류큐·오키나와와 동중국해 기지문제의 현재 | 개번 맥코맥

오키나와의 역사체험과 '비무(非武)의 평화' 사상 | 나미히라 쓰네오

유라시아에 걸친 위기의 활꼴(arc of crisis) 지대: KAL 007기, 유럽 미사일과 1983년의 전쟁 공포 | 번드 그라이너

안보의 정치: 냉전 초기 영국과 서독의 반핵운동 | 홀저 네링

특별 강연: 광복 70년, 한일수교 50년에 한일관계를 다시 바라본다

가깝고도 가까운 한일관계를 어떻게 구축하는가 | 하토야마 유키오

하토야마 유키오 전 일본 총리 특별강연 토론

아시아연구소 총서

쫓겨난 신선, 이백의 눈물 – 임도현 지음 |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물처럼 물이 되었다가 바람처럼 바람이 될 수 있었던 시 언어의 소유자, 이백. 그간 많은 책이 호방표일한 시인 이백의 모습을 다루어왔다. 그러나 이 책은 시선(詩仙)으로 불린 이백을 기존과 다른 관점에서 조명, 시인의 좌절로 얼룩진 삶까지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다. 최고의 권력인 황제 곁에도 있었지만 시인은 권력과 화합할 줄 몰랐다. 시를 통해 자신의 재능을 드러내고자 했던 이백은 자신의 이상과 현실의 커다란 간극 사이에서 좌절하고 절망하면서도 다시 일어나기를 반복했다. 그러나 현실은 그를 철저히 외면하였다. 그럴수록 시인은 영원불멸의 신화를 창조하기 위해 호기롭게 움직였다. 실패로 점철된 삶이었으나 포기를 몰랐던 시인, 이백. 그의 삶 속에 짙게 깔렸던 어둠의 시간까지 이 책은 환하게 조명하고 있다.

두보 고체시 명편 – 이영주 외 8명 역해 |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두보의 시는 단번에 이해하기 쉽지 않다. 풍부한 학식을 자양분 삼아 지어진 두보의 시는 다방면, 다각도의 해석을 요구한다. 때문에 두보의 시에 대한 학술성을 확보하면서 동시에 대중적인 접근을 겸비한 두보 명편집의 필요성이 절실했다. 이에 9명의 학자가 모여 두보 고체시의 학술성과 대중성을 확보한 두보 고체시 명작 57편을 엄선하여 상세한 해제와 함께 책으로 묶었다. 두보 고체시의 맛과 두보의 진면모를 조금 더 쉽고 정확하게 보여주기 위해 직역을 위주로 우리말 번역 작업을 진행했다. 〈두보 고체시 명편〉은 1994년부터 20년에 걸쳐 두시 완역 작업을 하는 집필자들의 공이 한데 담긴 두보 시선의 결정체라 할 수 있다.

글로벌 패러독스 – 임현진·서문기·윤상우 지음 |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지난 세기 서구 세계는 세계화 과정을 통한 발전의 밑그림을 제시해왔고, 대부분의 개발도상국은 이 그림을 따라가기 위해 훈련되어 왔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여러 국가가 발전의 대가를 지급하며 기존 틀에서 벗어나고자 노력하고 있다. 변화의 중요성은 신(新)자유주의에 의한 자본주의 발전의 딜레마와 이를 풀기 위한 국가, 시장, 시민사회의 상호 관계 성찰과 재조명이 필요하다는 데서 찾을 수 있다. 이 책은 국가 간 비교분석 전략을 토대로 한 11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본주의 다양성 논쟁과 세계화 및 반(反)세계화를 넘어선 대안적 아시아 발전모델의 모색 과정을 통해 지금 아시아에 필요한 도전과 과제를 파악할 수 있게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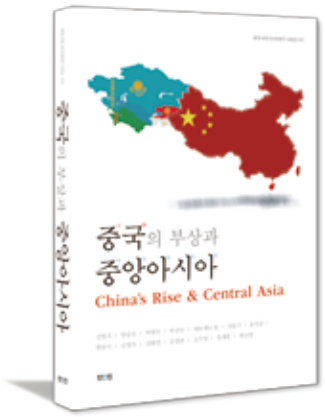
세계 속의 아시아연구 시리즈

한·중·일 사회적 경제 MAPPING – 김의영·미우라 히로키 편 | 진인진

이 책은 한·중·일 사회적 경제 조직의 현황과 제도적 성격 및 발전 과정을 살펴보고 비교 분석한 책이다. 한·중·일에는 다양한 관련 조직이나 사업체가 이미 제도화되어 있다. 이들 중 특히 사회적 경제와 관련성 높은 조직은 어떤 조직일까? 이들의 발전 경로와 제도적 성격은 어떠할까? 더불어 한·중·일 사이에는 어떠한 동질성과 이질성이 있으며, 사회적 경제의 본고장인 유럽 국가들과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이 같은 질문에 답을 찾기 위해 정밀한 조사·분석과 3국 간, 지역 간 비교분석이 이뤄졌다. 이 책은 사회적 경제의 다양성과 혼종성 및 동태성에 착목해 한·중·일의 사회적 경제 조직 지형도를 보여준다.

중국의 부상과 중앙아시아 – 신범식 외 13명 지음 | 진인진

이 책은 중국과 중앙아시아의 국제 관계를 조망한 최초의 학술연구서다. 중국의 국제 관계에 대해서 역사적 맥락과 함께 현재의 진전 상황에 대한 전체적인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안내한 이 책은 중국과 미-일 관계를 중심으로 한 동북아 중심 시각이 일반적인 우리나라의 기존 관행에서 벗어나, 중국의 부상을 유라시아 대륙의 차원 및 전 지구적 차원으로 확대해서 조망한 최초의 연구서라는 데에 큰 의의를 가진다. 더불어 한국의 발전을 위한 주요한 파트너이자 변수로 부상한 중국에 대한 이해를 돕고, 국제 관계에서 주요 지역으로 떠오르는 중앙아시아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정보를 제공한다.



한중일 청년을 말하다 – 강명구·김홍중·신혜선 편 | 진인진

이 책은 한국, 중국, 일본 3국의 청년들이 처한 현실과 이에 따른 다양한 양상을 다룬 책이다. '세대론'으로 설명해온 기존 청년 담론을 탈피, 현재 청년 세대들의 삶의 구체적인 맥락과 차이를 고려해 3국 청년들의 다양한 공통점과 차이점을 포착한 것이 이 책의 특징이다. 한국, 중국, 일본 청년에 관한 여러 주제의 논문을 통해 3국 문화의 독자성과 차별성이 청년 문제에서도 여실히 존재함을 밝히며, 청년 세대에 대한 이해를 통해 각 나라의 사회 현상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미디어

아시아연구소는 미디어를 통한 아시아 연구의 대중화와 발 빠른 성과물 공유, 확산을 위해 온라인 뉴스레터인 〈아시아연구소 소식〉을 격월간으로 발행하고, 페이스북 페이지 등을 운영하고 있다. 미디어 기반의 홍보 활동으로 아시아와 아시아 연구에 관심이 있는 연구자 및 일반 대중이 더욱 쉽고 편리하게 아시아연구소의 소식을 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콘텐츠를 생산, 배포하고 있다.

홈페이지 개편으로 아카이빙 기능 강화

아시아연구소는 학술행사 정보와 연구소 안팎의 소식을 보다 효율적으로 공유하기 위해 2015년 9월부터 11월까지 홈페이지 개편 작업을 단행했다. 홈페이지는 사용자 중심의 편리성을 고려해 반응형 웹페이지를 기반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에서도 최적화된 상태에서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설계했다. 더불어 학술행사 자료 및 인물 DB를 바탕으로 아카이빙 기능을 강화해 정보 활용도를 높였다. 상시적으로 학술활동을 비롯하여 연구 활동, 교육, 출판 등 다양한 분야의 뉴스와 정보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여 관리해오고 있다.

http://snuac.snu.ac.kr

온라인 뉴스레터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소식〉 격월간 발간

아시아연구소는 연 1회 책자로 발행해온 기존의 뉴스레터를 개편하여 격월간 온라인 뉴스레터 〈아시아연구소 소식〉을 2014년 11월에 창간하였다. 2016년 1월까지 총 8호의 소식지를 발행하였으며, 이메일과 페이스북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구독자를 늘려가고 있다. 〈아시아연구소 소식〉은 단순 행사 소개 및 홍보 차원의 연구소 소식지 틀에서 벗어나, 학술행사 및 연구 현장 움직임을 현장성을 강화한 기사 콘텐츠로 생산하고, 연구소 안팎의 뉴스를 내실 있게 담은 전문 웹진으로 발전시켰다. 또한, 모바일 기기 구독에도 불편함이 없도록 반응형 웹페이지를 기반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학술 콘텐츠 외에 연구소 사람들의 다양한 이야기와 아시아 답사 사진 갤러리도 제공하고 있다.

http://snuacnews.snu.ac.kr

실시간 정보 공유의 장, 페이스북 페이지

아시아연구소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s)의 대표적인 매체인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아시아와 아시아 연구에 관심이 있는 전공자 및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연구소의 다양한 소식을 전하고 있다. 페이스북 페이지는 2014년 3월 개설 이후 2,290명의 구독자를 돌파하며 이용자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모았다. 이러한 모바일 중심의 맞춤형 정보 제공 및 콘텐츠 확산으로 아시아 연구의 대중화에 기여하고 있다.

현재 본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연구소 주최의 학술행사와 온라인 뉴스레터의 주요 소식을 비롯해 아시아 연구 관련 출판, 교육, 교류 관련 다양한 정보와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더불어 일반 대중과 소통할 수 있는 열린 창구로써 이곳에서 수집된 의견들을 연구소 운영에 반영해오고 있다.

http://www.facebook.com/snuac

언론에 비친 아시아연구소

日本에 대한 호감度 13%로 곤두박질 | 조선일보 2015. 8. 10

'현대 중동문제 마주보기' 눈높이 특강

–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현대 중동문제 마주보기' 눈높이 강연 | 헤럴드경제 2015. 4. 16

환경재단 공동 '제4회 그린아시아포럼' 개최

– '골드만환경상' 수상자와 함께하는 제4회 그린아시아포럼 개최 | 데일리환경 2015. 5. 11

한·아세안센터 공동 기획 '아세안 경제 조망하기' 대중 강연

– 한·아세안센터, 아세안 경제조망 열린 강좌 개최 | NEWSIS 2015. 5. 19

하토야마 前 일본 총리, 11월 서울대 특강 | 조선일보 2015. 9. 9

미–중관계 세미나 시리즈 '빈번해지는 미·중 사이의 딜레마: 한국의 해법은?'

– 美–中 경쟁은 기회…韓 외교는 위기상황 | 조선비즈 2015. 6. 8

조선일보·아시아연구소 공동 '광복 70년 국민의식 조사'

– 日本에 대한 호감度 13%로 곤두박질 | 조선일보 2015. 8. 10

한국사회과학자료원 사업 이관

– 사회과학 국제화 기틀 닦은 구두회사 창업주의 꿈 | 조선비즈 2015. 8. 24

하토야마 유키오 전 일본 총리 특별강연

– 하토야마 前 일본 총리, 11월 서울대 특강 | 조선일보 2015. 9. 9

아시아자본주의 국제회의 관련 특집 | 중앙선데이 2015. 11. 1

토크 콘서트 '그린 JOB을 만나다' 개최

– 미래 가치 높은 환경관련 직업(JOB) 잡아라 | 환경데일리 2015. 10. 14

사회과학대학 설립 40주년 기념학술대회

– 서울대 사회과학대학 설립 40주년 기념 학술회의 개최 | 대학저널 2015. 10. 26

'아시아 자본주의' 국제회의 관련 특집 기사

– 신자유주의 위축 속 고개 든 아시아 모델… 우월론 아직 일러 | 중앙선데이 2015. 11. 1

"젠트리피케이션 없는 공공 도시재생 위해 '알박기 거점' 시설을" | 한겨레신문 2015. 12. 23

제주국제연구센터 공동 'UN 지속가능개발목표이행' 세미나

– 제주국제연수센터 4~5일 전문가 세미나 | NEWSIS 2015. 12. 2

제1 회 도시정책포럼 '젠트리피케이션 없는 도시재생은 가능한가?'

– "젠트리피케이션 없는 공공 도시재생 위해 '알박기 거점' 시설을" | 한겨레신문 2015. 12. 23

후원/재정

연구기금

㈜삼익악기 김종섭 회장 (10억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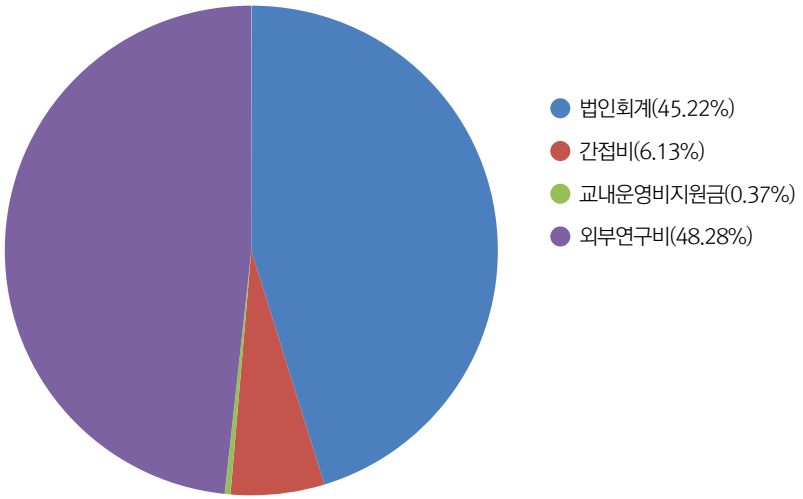
㈜영원무역 성기학 회장 (10억 원)

3Plus Logistics 김영석 회장
(학술교류기금, 1억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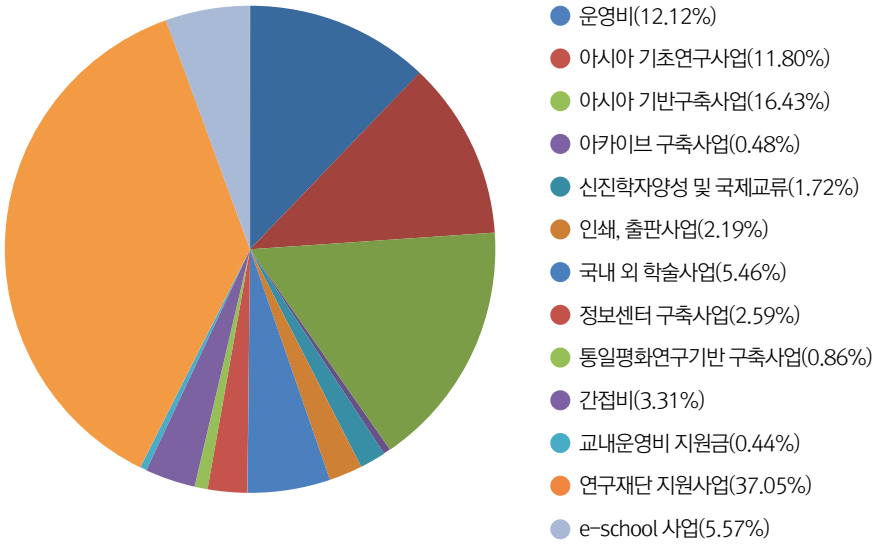
서울대 사회과학대학 임현진 교수
(임길진 Fellowship, 1억 원)

※2009년 이후 누적분임

수입: 총 4,052,152,500원



지출: 총 3,413,721,572원



* 외부연구비(수입): 국제교류재단(2015. 3 ~ 2016. 2 KF Global e-School),
한국연구재단(2015. 9 ~ 2016. 2 외부연구비 지원사업 참조)

* 외부연구비(지출): 국제교류재단, 한국연구재단(2015. 3 ~ 2016. 2)

* 그 외 사업기간 회계 및 산정 기간: 2015. 3 ~ 2016. 2

연혁

2009년 2월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출범(창립 소장: 임현진 교수)

2009년 9월 제1회 SNUAC 국제학술대회 '아시아란 무엇인가: 회고와 전망' 개최

2010년 7월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신축건물 기공(2013년 2월 완공)

2010년 9월 한국연구재단 대학중점연구소 지원사업 기관으로 선정

2011년 3월 KF Global e-School 사업 기관으로 선정

2011년 10월 제2회 SNUAC 국제학술대회
'Global Challenges in Asia: New Development Model and Regional Community Building' 개최

2012년 9월 한국연구재단 신흥지역 연구사업 기관으로 선정

2013년 3월 아시아 연구기반 구축사업 시작

2013년 4월 〈열린강연〉 '이제는 아시아시대' 개최

2013년 5월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개관식

2013년 9월 제2대 아시아연구소 소장 취임(강명구 교수)

2013년 9월 중점연구소 지원사업 2단계 진입

2014년 3월 세계 아시아연구소 소장회의 'New Horizons of Asian Studies' 개최

2014년 9월 신흥지역연구 사업 2단계 진입, SSK 사업 중형 단계 진입(국제무역, 통상질서 그리고 표준화 연구단) 및 신규 유치(동아시아와 도시연구단), 토대연구사업 선정

2015년 6월 한국사회과학자료원(KOSSDA)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이관

2015년 7월 〈아시아리뷰〉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 선정

2015년 10월 아시아자본주의 국제학술회의
'Capitalism and Capitalisms in Asia: Origin, Commonality and Diversity' 개최

사람들 *2016년 2월 기준

소장 강명구(언론정보학과)
부소장 정근식(사회학과)
학술연구부장 김봉근(경제학부)
국제교류부장 박배균(지리교육과)
인재개발부장 홍석경(언론정보학과)
동북아시아센터장 정근식(사회학과)
동남아시아센터장 오명석(인류학과)
중앙아시아센터장 신범식(정치외교학부)
한국사회과학자료원 디렉터 이재열(사회학과)
대중문화 프로그램 디렉터 김홍중(사회학과)
미-중 관계 프로그램 디렉터 정재호(정치외교학부)
민주주의와 경제발전 프로그램 디렉터 김의영(정치외교학부)
시민사회 프로그램 디렉터 임현진(서울대 명예교수, 창립소장)
아시아-글로벌 경제질서 프로그램 디렉터 박지형(경제학부)
환경협력 프로그램 디렉터 박수진(지리학과)

선임연구원

공석기(사회학)
김동완(도시계획학)
김성규(산업사회학)
김유미(국제학)
김은혜(사회학)
김종철(사회학)
김태연(정치학)
남은영(사회학)
라미령(경제학)
신혜선(언론정보학)
양승조(역사학)
엄은희(지리교육학)
이지혁(국제학)
정법모(인류학)
주윤정(사회학)
최경희(정치외교학)
최아영(역사학)

연구원

김현민(국제교류)
박찬진(개발협력)
양나름(아시아자본주의)

한국사회과학자료원

김대훈(자료개발)
김혜진(질적자료)
이상운(통계자료)
진윤아(방법론교육)
한아름(문헌자료)
허혜옥(조사자료)

행정지원

윤화식(행정총괄)
김고운(학술연구)
김예인(홍보)
박종홍(디자인)
백현지(교육)
송신의(출판)
이수연(자료원행정)
장보영(일반행정)
조하은(연구과제관리)
최현아(부속실)

국제자문위원

강찬수(KTB투자증권 고문)
김영석(3Plus Logistics 회장)
김정구(엠쓰리미디어 아시아공동대표 회장)
박홍규(前 국립외교원 교수)
신의항(Univ. of South Carolina 명예교수)
장호권(사상계 발행인 및 편집인)
정우성(前 벨기에 유럽연합대사)
최인수(前 서울대 미술대학 학장)

객원연구원

CHUAI Xiaowei(Nanjing Univ.)
Jinn yuh Hsu(Sichuan Univ.)
Li Yang(Communication Univ. of China)
Shaoqiang Fu(Communication Univ. of China)
Yamato Yumiko(Kyushu Univ.)
강명세(세종연구소)
고가영(한국외대)
김광억(서울대 명예교수)
김미경(Hiroshima City Univ.)
김민환(한신대)
김용덕(서울대 명예교수)
박영훈(SK㈜)
박정희(Peking Univ.)
안청시(서울대 명예교수)
이준표(한국기업법무협회)
전제성(전북대)
표학길(서울대 명예교수)
홍정표(Miyazaki Int'l College)
황석만(창원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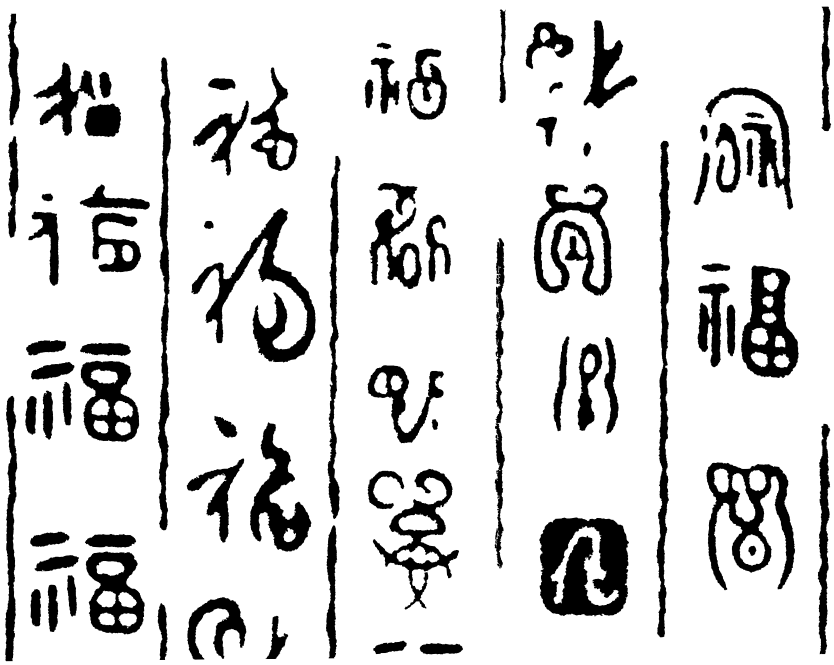
방문연구원

Imaine SAHED(EHESS, EHESP, France)
Joanna Hong(Univ. College London, UK)
OUL KLARA HAN(Freie Univ. Berlin, Germany)
Sighard Neckel(Goethe Univ., Germany)
김헌준(고려대)
손정원(Univ. College London, UK)
신현방(LSE, UK)
우은희(Freie Univ. Berlin, Germany)
윤오순(Univ. of Exeter, UK)
이윤경(Academia Sinica, Taiwan)
전갑생(역사학연구소)
조규훈(Nanyang Technological Univ., Singapore)
황진태(Univ. of Bonn, Germany)

SNUAC
Seoul National University Asia Center
서울대학교아시아연구소

2015 연차보고서

발행처 :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발행일 : 2016년 3월 21일
발행인 : 강명구
기획 : 홍보위원회
편집 : 신혜선, 김예인
디자인 : 박종홍
주소 : 08826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전화 : 02-880-2692
팩스 : 02-883-2694



SNUAC
Seoul National University Asia Center
서울대학교아시아연구소

08826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Phone : 02-880-2692
Fax : 02-883-2694

Homepage : http://snuac.snu.ac.kr
Facebook : http: //www.facebook.com/snuac
Newsletter : http: //snuacnews.snu.ac.kr
E-mail : snuac@snu.ac.kr